

발간등록번호

11-1342075-000007-0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특수학교 예술교과를 중심으로

책임연구자 | 방귀희(한국장애예술인협회)

공동연구자 | 김언지(한신플러스서울남부센터)

연구협력관 | 오영석(국립특수교육원)



국립특수교육원

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 이 연구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으로서 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에서 수행한 것입니다.



머리말

*

2013년 10월

국립특수교육원장 

연구요약

최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신적,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예술이 시대적으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며 문화예술 향유는 이제 보편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욕구와 그에 따른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며, 문화적 생활 및 여가생활 실현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장애인도 문화예술교육과 향유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향유와 창조적 함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임을 명시하였다.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는 특수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형태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과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의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장애 학생 문화예술 지원방향에 대해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중심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는 우선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국 특수학교 예술 교과(음악, 미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학교 162개교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9개교를 제외한 15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 중 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학교 졸업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권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장애학생은 입학 후 학교 교과목 안에서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게 되며, 교과목 안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느끼며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고 재능을 발견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문화예술 과목(음악과 미술)의 시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물리적 환경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음악과 미술을 담당하고 있는 기존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수가 정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예술전공 교사에게는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연수가 의무화되어야 한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모든 특수학교에 전용 음악실과 미술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음악, 미술 교과와 관련하여 학교현장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 영역별, 단계별 프로그램 교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사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지역별로 문화예술중점 학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가칭)를 채용하고,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수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단체, 전문인력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교과목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만으로는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예술중고등학교 설립을 제안한다. 장애인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중점 학교와 연계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방법	3
II. 이론적 배경	5
1. 특수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의미	5
가. 장애학생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5
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9
2. 선진국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18
가. 스웨덴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18
나.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22
III.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	29
1. 음악교과 운영 실태	29
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29
나. 응답학교의 일반적 사항	33
다. 음악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35
라.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	43
2. 미술교과 운영 실태	48
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48
나. 응답학교의 일반적 사항	52

다. 미술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54
라. 미술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	62
3.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질적 조사(FGI)	68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 조사	68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조사	75

IV. 결론 및 제언

1.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 방안	87
가. 예술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	87
나. 예술교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의 개선	89
다. 예술교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91
라.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93
2.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방향	94

참고문헌

부록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욕구 및 실태조사(음악교과/미술교과) 설문지	103
--	-----

표목차

〈표 II-1〉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체육, 예술 수업 강화	9
〈표 II-2〉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 시간(단위) 배당 기준	11
〈표 II-3〉 음악과 총괄목표	12
〈표 II-4〉 음악과의 단계별 내용	12
〈표 II-5〉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학년군별 내용(내용의 수준과 범위)	13
〈표 II-6〉 미술과 총괄목표	14
〈표 II-7〉 미술과의 단계별 내용	15
〈표 II-8〉 기본 교육과정 미술과 학년군별 내용체계	15
〈표 II-9〉 공통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보완이 필요한 교과(특수학교)	17
〈표 II-10〉 공통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보완자료(특수학교)	17
〈표 II-11〉 국민고등학교 프로그램 예시	21
〈표 II-12〉 일본 초등학교 음악교과와 도면공작교과의 단계별 내용	25
〈표 II-13〉 츠쿠바 시각장애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음악과 교육내용	27
〈표 III-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30
〈표 III-2〉 근무형태	30
〈표 III-3〉 담당 과정(복수응답)	31
〈표 III-4〉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31
〈표 III-5〉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32
〈표 III-6〉 음악 교과 관련 전공과목	32
〈표 III-7〉 특수학교 설립 형태별 응답자 수	33
〈표 III-8〉 지역별 응답자 수	34
〈표 III-9〉 특수학교 장애유형 (복수응답)	35
〈표 III-10〉 음악 교과 운영 장소	36
〈표 III-11〉 음악 교과 악기 보유 현황	36

〈표 III-12〉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37
〈표 III-13〉 음악교과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39
〈표 III-14〉 음악 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40
〈표 III-15〉 음악 교과에 대한 이해도	40
〈표 III-16〉 음악 교과 주체별 참여 정도	42
〈표 III-17〉 음악 교과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 여건	43
〈표 III-18〉 음악 교과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44
〈표 III-19〉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	44
〈표 III-20〉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45
〈표 III-21〉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46
〈표 III-22〉 희망하는 음악교과 운영 형태	46
〈표 III-23〉 음악교과 운영 시 보완사항	47
〈표 III-24〉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음악활동 유무	48
〈표 III-25〉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49
〈표 III-26〉 근무형태	49
〈표 III-27〉 담당 과정(복수응답)	50
〈표 III-28〉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50
〈표 III-29〉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51
〈표 III-30〉 미술교과 관련 전공과목	51
〈표 III-31〉 특수학교 설립 형태별 응답자 수	52
〈표 III-32〉 지역별 응답자 수	53
〈표 III-33〉 특수학교 장애유형(복수응답)	54
〈표 III-34〉 미술교과 운영 장소	55
〈표 III-35〉 미술교과 교구 보유 현황	55
〈표 III-36〉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	56
〈표 III-37〉 미술교과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58
〈표 III-38〉 미술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59
〈표 III-39〉 미술교과에 대한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	60

〈표 III-40〉 미술교과 프로그램 주체별 참여 정도	61
〈표 III-41〉 미술교과 시설 및 인력 여건	62
〈표 III-42〉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63
〈표 III-43〉 미술교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원인	64
〈표 III-44〉 미술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64
〈표 III-45〉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65
〈표 III-46〉 희망하는 미술교과 운영 형태	66
〈표 III-47〉 미술교과 운영 시 보완사항(복수응답)	67
〈표 III-48〉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 유무	67
〈표 III-49〉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75

그림목차

〈그림 II-1〉 에이블 아트 개념	23
〈그림 IV-1〉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 방안	91
〈그림 IV-2〉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향	95
〈그림 IV-3〉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98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사회가 경제적, 물질적으로 윤택해지면 사람들은 정신적, 문화적 풍요로움을 갈망하게 된다. 국가의 정책적 목표 또한 사회복지와 문화예술이 중점 방향이 되며 개개인의 문화적 삶에 대한 욕구도 증가하게 된다. 정신적, 문화적 욕구 충족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삶의 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예술은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며 시대적으로 중요한 화두이고 문화예술 향유는 이제 보편적인 삶의 일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욕구와 그에 따른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은 장애인도 마찬가지이며, 문화적 생활 및 여가생활 실현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하는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장애인도 문화예술교육과 향유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도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의 생산자, 향유자로서 정신적, 문화적 욕구가 충족될 때 그들의 삶의 질 또한 향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창작 및 표현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경제적 지원과 법률 및 제도의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 사회 일원으로서 비장애 예술인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문화적으로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장애라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욕구와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소양과 감상 혹은 창작능력을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인지적 사고 증진과 예술적 이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를 이해하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문화예술교육지원법(법률 제 7774호, 2005년 12월 29일)이 제정되어 문화예술교육이 전 국민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골고루 부여되는 권리임과 문화예

술의 향유와 창조적 함량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임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교육은 특정 예술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변화된 문화 또는 예술 세계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교육 공공성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들이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변화는 특수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주어 장애학생을 위한 미술교육, 음악교육, 체육교육, 무용교육, 국악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은 그들이 지닌 특성을 이유로 문화예술을 경험하는데 많은 제한을 받아왔다. 장애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은 매우 중요한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과 수준에 맞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 방법 및 프로그램의 부재가 문제시되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교육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접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도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장애학생 부모들의 76%가 문화예술교육 증가에 대해 원하고 있으며 이들 중 35%는 자녀가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종인 외, 2009). 무엇보다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특수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학생들을 위한 효율적이고 성과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학생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하고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절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필요성, 특수교육 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과 실태를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함으로써 향후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과 관련된 선행연구 고찰과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의 실태 파악을 통해 향후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장애학생 문

화예술 지원방향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교 교육과정 중심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학교교육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는 예술교과와 방과 후 수업,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학교를 벗어나서는 복지관,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이 장애학생에게는 처음으로 접하는 문화예술 경험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개개인의 예술적 경험과 재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수방법, 통합적인 전문가에 의해 실시된다면 보다 많은 장애학생들이 정서적 안정은 물론, 자신감 향상, 취미 및 직업에의 다양한 가능성을 학교 교육 안에서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학교 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은 장애학생이 사회에 나왔을 때, 자기를 표현하고 사회와 소통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기실현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매개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에게 펼쳐질 다양한 미래를 위한 재능 개발과 문화적 적응을 위해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실태에 나타난 문제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장애학생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였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사례를 조사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반영하였다.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국 특수학교 예술교과(음악, 미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학교 162개교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9개교를 제외한 15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음악교과의 경우 153개교 중 118개교(77.1%)의 담당교사 181명이 응답하였으며, 미술교과의 경우 153개교 중 98개교(64.1%)의 담당교사 154명이 응답하였다. 또한, 깊이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그 중 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졸업 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학부모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수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및 의미

가. 장애학생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의미

국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화생활과 여가에 대한 관심 및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흐름에 따라 문화복지라는 용어가 등장하였으며 이는 삶을 문화화하고 문화적 수준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문화예술교육정책 또한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세분화된 문화적 창의성의 제고, 문화적 정체성의 강화 및 다양성 확대 등에 대한 제고를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까지 다양한 계층에 걸쳐 폭 넓게 확산되어 있다. 교육 영역에서도 음악, 미술, 연극, 무용 등 전형적인 예술영역뿐 아니라 애니메이션, 영화, 미디어 등 문화의 전반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문화관광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놓았으며 이후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계획」 등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렇다면 문화예술교육이란 무엇인가?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뜻한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교육인적자원부는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상호 연계적, 보완적 관계로 설정한 개념으로 예술교육을 통한 교육적 가치가 사회, 문화 맥락에서 모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역량 강화를 지향하는 교육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문화예술교육이 학교와 사회에서의 예술교육을 통해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능력을 높이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은 예술활동의 창작과 감상에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문화예술향유의 삶을 지향하는 배움, 학습과 관련된 일체의 활동이다. 따라서, 일상에서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체

힘하고 예술적 역량을 강화시키는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참여자의 수준향상에도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문화와 예술, 교육은 다른 것이지만 예술과 교육에는 문화가 스며있고 문화를 주체로 하는 학문 그리고 예술은 교육의 소재가 되며 문화를 활용하고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예술적 체험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문화, 예술, 교육은 별개의 영역임에는 분명하지만 각기 포함하고 있는 목적과 내용이 유사하므로 서로 융합되어 추구할 수 있는 영역이라 할 수 있다(이필상, 2010). 교육활동이 예술활동은 아니지만 교육활동에 개입된 정서를 표현해 내는 예술활동이 수반되어 예술활동 자체가 교육활동에서는 중요한 소재가 되며 그 활동을 조직하는 독특한 방식 역시 교육에서는 소재가 될 수 있는 것이다(윤여각, 2003).

정책적 측면에서 문화예술교육은 교육 내용과 교육 과정에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으로서 그 범위는 교육 목적에 따라 대상자의 창의성과 문화적 해득력을 개발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전문가 양성 등을 포함한다(백령, 2005).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내용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제 1항). 학교교육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음악, 미술 등의 교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며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활동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예술과 교육은 각각 독립적인 성격과 대상이 있다. 예술은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으며 독창성이 없는 예술은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교육은 개개인의 예술에 대한 고유의 잠재력을 발휘시키고 독창성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에서는 예술이라는 매개를 통해 잠재력을 이끌어내며 이로 인해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학교교육 안에서의 예술교과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정형화된 교육방식이 아닌 개별적인 영역으로 자유로워야하고 이러한 개별 표현이 존중되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신들의 기법으로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이러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 감정, 정서 등을 드러내며 이에 따른 평가 또한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2005년 12월 제정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은 문화예술교육이 어린이, 청소년,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사회 취약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제3조 문화예술교육의 기본 원칙에서 ‘장애’를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공고히 했다. 또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에서는 4대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15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는 취약계층 및 특수시설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로 구분되어 예술 강사 파견사업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 사업 등으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의 관심과 확산은 장애 학생의 교육에 있어서도 새로운 분기점이 되고 있다.

장애학생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은 단순히 문화활동이나 예술활동을 증진시키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이나 문화교육 활동을 매개로 장애학생의 성장을 유도하고 개개인의 균형적 발전과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문화예술교육은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으며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비언어적인 표현능력을 개발시켜 창의적인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문화예술교육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체장애나 지적장애로 자신을 표현하기 힘든 경우 그림이나 음악, 춤을 통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 소통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다. 이러한 예술적 활동을 통한 소통은 대인관계를 확장시키고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결과적으로 사회에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예술교육의 강점으로 볼 때 비장애학생들 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특수교육에서는 개별적 교육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문화예술교육 또한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의미 있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전문적인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교실 안에서의 교육이 아닌 문화예술 현장과 연결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한편, 장애학생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혜택과 기회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예술 관련 시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물리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형식

적이고 정형화된 교육 프로그램에 있다. 장애학생의 감수성 및 감성을 자극하는 내용보다는 재활치료나 기능위주의 문화예술교육이 더 강조되어 왔던 부분도 장애학생들의 미적체험 문화예술교육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이유이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치료의 목적으로 보기보다 장애학생 또한 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주체이자 재능 있는 잠재적 예술가로 보는 시각이 향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극적이고 분리적인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문화향유권의 확보와 문화예술교육의 기회 제공, 접근 가능한 문화예술 환경의 조성이 앞으로의 정책지원에 있어 관건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은 그동안 재활, 장애극복의 관점이 강조되어 왔으나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할 때 문화향유, 재능개발, 소비, 생산 등 문화적 행위 자체의 즐거움, 여가선용 등의 본질적인 목적을 중심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실시될 때 사회적 재활, 자립생활, 나아가 사회통합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은 통합적 교육 방법이다. 무엇을 어떻게 누가 가르치느냐에 있어 다른 교과목에 비교하여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교 교육 안에서도 문화예술교육을 다른 교과과정과 연계시키고 확장할 수 있으며 학교 교실을 벗어나서는 특수교육 분야를 벗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통합적 접근을 시도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교육 내용간의 연계 및 통합, 학교와 지역사회 생활과의 통합, 학생 개개인이 갖고 있는 예술적 재능과 교사의 예술적 경험과 지도방법에 있어서의 통합 등 다양한 통합적 접근을 통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전문적 예술교육 담당 교사의 역할분담 및 효과적인 협력 방법에 대한 모색, 현장에서의 프로그램 적용 등이 과제일 것이다. 이러한 문화예술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통합교육의 실제적인 적용은 학교 밖의 사회에서의 통합 가능성도 높여줄 수 있다. 실제로 미술활동, 음악활동, 연극 등을 통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은 장애인복지관 및 시설 등에서 종종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앞으로의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문화복지의 개념을 기반으로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권으로서 다양한 통합적 접근 방식에 대한 시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포함한 장애예술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진정한 사회통합 실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특수학교 교육과정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현황

보편적으로 일반 학교교육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은 예체능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의거한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이루어진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규 교육과정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정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있다. 이 밖에 정규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예술교육으로는 특기적성활동, 방과후활동, 교외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을 들 수 있다(이필상, 2010).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표 II-1)에서는 글로벌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력을 위한 체육·예술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를 이해할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생 건강 체력 증진과 창의·인성 함양을 위한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입시교과 중심 교육 안에서 체육과 예술교육에 대한 관심 저하 및 인성교육 부재를 염려하며 학생이 주체가 되는 내실화 있는 체육, 예술 교육과정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다.

〈표 II-1〉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체육, 예술 수업 강화

구분	7차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초/중	고	초/중	고
체육	주당 2-3시간	8단위 정도	현행과 동일	필수 이수단위 10단위
예술	음악	주당 1-2시간	현행과 동일 (집중이수)	필수 이수단위 10단위
	미술	주당 1-2시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1). 학교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한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시행규칙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종별 및 정도를 고려하여 대상자의 능력에 따라 학년의 구분 없이 교과 수준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과정을 정하고 있으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에 대한 교과를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에도 반드시 접목시켜야 할 부분으로, 이에 2011 특수교육 교육과정 부분 개정에서는 교육과정 중 집중이수제를 개선하여 2012년 2학기부터 체육, 예술교육 강화를 통한 바른인성 함양을 위해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의 경우, 중·고등학교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시켰으며, 2012년 3월부터 실시중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학년별 연간 34~68시간으로 정하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함양 및 예술적 소양 증진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업시간 확대 등의 단편적 접근방식이 아닌 수업방법 개선, 교원 전문성 제고, 학생 참여 중심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이미 장애 종류별, 특성별로 활성화 되어 있는 체육 과목과는 달리 문화예술 교육은 오랫동안 장애학생에게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지 못했으며 구체적인 실태에 대한 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은 일반학교와 비슷한 교과목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교과목 중 음악, 미술 교육은 창의성 육성, 미적정서 함양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며 예술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는 의미에서 볼 때, 예술 교과는 문화예술교육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11년 부분 개정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의 예술교육 배당 기준은 <표 II-2>와 같다.

〈표 II-2〉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 내 예술교육 시간(단위) 배당 기준

구분	초등 1-2학년	초등 3-4학년	초등 5-6학년	중학 1-3학년	고등 1-3학년
예술(음악/미술) 교과 수업시간 수	256시간	272시간	272시간	306시간	18단위
학년군별 총 수업시간 수	1,680시간	1,972시간	2,176시간	3,366시간	204단위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행 특수학교 교육과정 중 기본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2009)에서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이 깊은 교과 중 음악, 미술과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악 교과는 학생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다. 교육과정에서는 장애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여 쉽고 재미있게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본 교육과정과의 연계성도 강화시켰다. 또한, 음악을 느끼고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수학교 기본 교육과정에서는 이상과 같은 음악 교과의 본질을 토대로 특수학교 음악 교과의 성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잠재된 음악적 능력을 계발한다. 둘째,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게 한다. 셋째, 음악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통해 풍부한 정서를 기르게 한다. 넷째, 음악 활동을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한다. 다섯째, 감상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음악적 경험을 제공한다. 음악교과의 총괄목표는 〈표 II-3〉과 같다.

〈표 II-3〉 음악과 총괄목표

총괄목표	미적 감수성, 창의적 표현 능력, 음악 문화의 정서적 수용 능력과 태도		
하위목표	지각 영역	표현 영역	감상 영역
	소리에 관심과 흥미, 생각이나 느낌 표현	음악의 요소 이해, 음악적 기능 습득, 전통 음악의 체험과 존중	올바른 감상, 실제 생활에 활용, 전통 음악 감상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교과 내용은 학생들의 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지각 활동, 표현 활동, 감상 활동으로 구분하여 심화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은 3단계로 연속성 있게 조직되어 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2009) 음악과의 단계별 내용 〈표 II-4〉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년군별 내용 〈표 II-5〉는 다음과 같다.

〈표 II-4〉 음악과의 단계별 내용

영역 단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지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 속의 소리듣기 소리의 특징 구별하기 여러 가지 소리에 대한 느낌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의 요소 알기 다양한 악곡 듣고 느낌 표현하기 음악의 쓰임새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악의 요소 알기 음악 기호 알기 악기의 종류 알기 연주 형태와 음악의 쓰임새 알기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리 내기 소리 만들기 타악기 다루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로 자연스럽게 노래 부르기 리듬악기 다루기 신체를 이용하여 소리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자세로 노래 부르기 악기 다루기 창작 활동하기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바른 감상 태도 기르기 다양한 음악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연주곡 감상하기 생활 속의 음악으로 여가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악곡의 주제와 내용 이해하기 음악을 여가활동으로 활용하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표 II-5〉 기본 교육과정 음악과 학년군별 내용(내용의 수준과 범위)

구분	초등1-2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중학	고등
범위	개인, 가정, 학교	학교,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	학교, 지역사회, 문화축제	지역, 국가, 다문화
수준	신체, 주변의 물건, 자연 등을 소재 (소리에 반응)	신체, 주변의 물건, 자연, 리듬악기 (소리 탐색)	신체, 주변의 물건, 가락악기 (탐색과 듣기)	가창 및 신체, 다양한 악기연주, 음악감상	신체, 다양한 악기와 관악기, 합주, 음악감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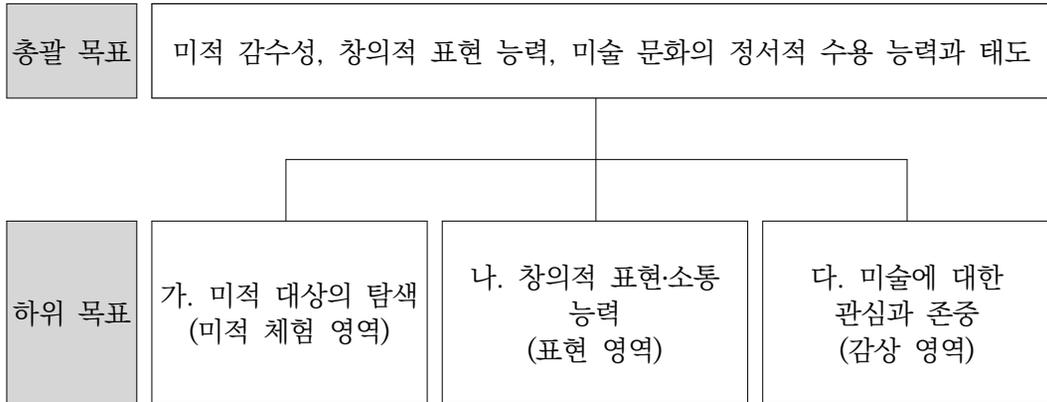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활용 세미나.

이러한 음악 활동은 장애학생들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잡한 활동보다는 단순하고 재미있게 구성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지시키는 가운데 학습 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교수·학습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하며 표현 활동에서는 학생의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 학습량을 조절함으로써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음악 활동에는 많은 제한점이 따르므로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즉, 음악 활동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장애학생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시키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재능을 발견,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음악적 전문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미술과목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 학생의 정서적 안정감과 심미감을 기르는 예술 교과로, 여러 가지 시각 이미지와 미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자신과 세계를 이해하는 교과이다. 미술과 교육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심미적인 태도를 육성하고 상상력, 창의력, 표현력을 향상시키며 사회적 소통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다양한 예술 작품과 시각 문화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며, 시각·촉각·근육 운동이 포함된 표현 활동은 학생의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총체적인 표현을 통

하여 긍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하게 도와줄 수 있다. 미술과의 총괄 목표는 <표 II-6>과 같다.

<표 II-6> 미술과 총괄목표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미술과의 내용 영역은 학습자의 감각적인 체험을 통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느끼게 하여 다양한 시각 문화 환경을 체계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둔 미적 체험 활동 영역과 자신의 생각과 경험 또는 느낌을 미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게 하여 창의적인 표현력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 표현 활동 영역, 그리고 자연 현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및 주위의 사물을 감상하거나 서로의 작품 감상을 통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며 바른 감상 태도를 익히고 미적 감각을 기르는 데에 중점을 둔 감상 활동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수학교 교육과정(2009) 미술과의 단계별 내용 <표 II-7>과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년군별 내용 <표 II-8>은 다음과 같다.

〈표 II-7〉 미술과의 단계별 내용

영역 단계	I 단계	II 단계	III 단계
미적 체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의 아름다움 지각하기 • 자연미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미와 조형미 특징 알기 • 조형미 체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의 아름다움 발견하기 • 자연미와 조형미 체험하기
표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인 형과 색 알기 • 회화 : 밑그림 그리기 • 표현재료체험하기 • 꾸미기와 찍기 • 공예 활동하기 : 점토, 소조 • 디자인하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과 색 조합하기 • 회화 : 보고그리기 • 재료 표현하기 • 꾸미기와 만들기 : 평면 • 공예 활동하기 : 평면-부조 • 디자인하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과 색 응용하기 • 회화 : 자유롭게 그리기 • 재료의 느낌 응용하기 • 꾸미기와 만들기 : 입체 • 공예 활동하기 : 입체-소조 • 디자인하기(3)
감상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람의 작품에 관심 갖기 • 바른 자세로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품의 특징 이해하기 • 우리나라 미술 작품 감상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을 통한 미술 작품 감상하기 • 다른 나라 미술작품 감상하기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표 II-8〉 기본 교육과정 미술과 학년군별 내용체계

구분	초등1-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중학	고등	
체험	지각	자신과 주변탐색	자신과 자연환경 체험	자신과 주변환경 관찰	자신과 주변환경의 조형적 특징 발견	자신과 주변환경의 조화 발견
	소통	자신과 주변에 대한 느낌 표현	생활주변의 아름다움에 대한 느낌 표현	생활 속 시각문화 활용	시각문화의 소통방식 이해	시각문화에 참여

구분		초등1-학년	초등3-4학년	초등5-6학년	중학	고등
표현	주제 표현	주제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	주제를 탐색하여 다양하게 표현하기	주제의 특징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	주제의 특징과 목적을 개성적으로 표현	주제의 목적을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표현 방법	주변의 재료와 용구를 탐색하여 자유롭게 표현	기본적인재료, 용구표현 방법을 탐색하여 표현	표현의 특징을 알고 효과적으로 표현	새로운 표현방법, 매체를 활용하여 개성적으로 표현	표현방법, 매체를 확장하고 창의적으로 표현
	조형 요소와 원리	조형요소를 자유롭게 탐색하고 표현	조형요소와 원리를 탐색하여 다양하게 표현	조형요소와 원리의 특징을 알고 표현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개성적으로 표현	조형요소와 원리를 활용하여 창의적으로 표현
감상	자신과 주변미술에 관심갖기	미술작품과 문화재 알아보기	미술의 현황과 특징 알아보기 미술작품의 감상 방법 경험하기	시대별 미술과 시각 문화 알아보기 작품의 가치와 의미 알아보기	사회와 작가의 미의식 찾아보기 미술품의 가치 판단하기 전시회 개최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활용 세미나.

교수방법에 있어서는 장애학생의 흥미와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면서 학습자 중심의 개별적인 과정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는 장애 학생의 다양한 흥미와 관심,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하여 뚜렷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동기화 과정에도 비중을 두어야 한다.

한편,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국립특수교육

원, 2013)’에서는 전국 특수학교(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과 선택교육과정 운영 실태 및 개선 요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공통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보완이 필요한 교과를 시각, 청각, 지체 장애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알아본 결과, 시각장애 학생에게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컴퓨터, 보행 과목에 보완이 필요하며, 청각장애 학생에게는 국어, 영어, 음악, 수화, 의사소통 과목에,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과목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II-9〉).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보완자료는 〈표 II-10〉과 같다.

〈표 II-9〉 공통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보완이 필요한 교과(특수학교)

구 분	교 과 명
시각장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음악, 컴퓨터, 보행
청각장애	국어, 영어, 음악, 수화, 의사소통
지체장애	체육,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미술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3).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표 II-10〉 공통 교육과정에서 장애영역별로 필요한 보완자료(특수학교)

구 분	교 과 명
시각장애	점역 및 양각자료, 다양한 촉각자료, 음성자료, 교과서에서 제시되는 그림/사진/도형/도표/그래프 자료 등의 점역화, 수준별 참고서, 촉각수학
청각장애	수화교재, 국어교과 재구성, 느끼는 음악, 수화사전, 시청각교재
지체장애	각종 보장구, 감각자극 자료, 학습지, 신체의 제약을 보완해주는 보완교구, 의사소통도구, 자세유지도구

출처: 국립특수교육원(2013).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위의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장애 영역별 보완교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

교사가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예시자료와 사례를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예술교육 관련 미술과 음악 교과와 같이 장애영역별 교수·학습 방법이 상이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특수교육 교사는 물론이고 일반교사, 예술가, 예술교육자 등과 함께 예술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이해와 교육방법론에 대한 모색이 절실하며 효과적인 협력교수 방법론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2. 선진국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수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장애학생을 위해 발전적인 문화예술교육정책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 스웨덴과 우리나라와 유사한 환경을 갖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가. 스웨덴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세계 최고의 복지모델을 자랑하는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은 특정 소수의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복지가 기본원칙이라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 스웨덴의 문화정책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문화예술을 사회에 통합시키고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며 개인의 행복과 사회 전체 구성원들에게 균등하게 만족감을 분배할 수 있는 집단적 복지의 기본적인 형태로 인식되어져 왔다(최현정, 2010).

따라서, 스웨덴 정부는 복지국가로 목표로 사회보장제도 마련과 함께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특히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시설의 특정 지역 또는 계층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지방 분산을 문화정책 목표의 우선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자유를 모든 사람이 향유하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국민 개개인이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경험하도록 함과 동시에 창의력을 개발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화예술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적절한 이용, 문화예술교육 증진, 국제문화교류 및 다양한 문화 간 접촉을 증진하는 내용들을 문화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전 국민의 참여와 접근성을 강조하는 정책에 힘입어 스웨덴 국민의 90% 이상이 문화예술단체에 소속되어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다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문화생활의 다양성과 질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역할 정도만 수행하고 있다. 예술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한 광범위한데 스웨덴 정부는 문화예술기관을 확대하고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하는 한편, 공공건물에 게시할 예술작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지원한다.

스웨덴의 학교교육에서는 창의적 활동이 능동적인 학습의 필수요소라는 인식에 힘입어 2009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생활 권리를 중점 내용으로 하는 문화정책목표를 채택하여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1년 이후 매년 약 240억원을 의무교육과정 예술교육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으며(252개 지자체 126개 학교) 학생들의 공연, 박물관 관람지원, 문화단체 소속 예술강사의 교육 활동 지원, 학교와 문화단체간의 협력 세미나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6개 국립 문화단체가 학교경진대회, 학생들을 위한 문화예술적 환경조성,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의 예술과정을 스웨덴에서는 학교 교육 안에서 무료로 모두 이루어지는데 이는 부모의 소득수준, 장애/비장애와 관련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이루어진다.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요과목은 물론 문화예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교사와 학생이 서로 토론하고 작품을 완성하며 무엇보다 학생 스스로가 선택해서 참여하기 때문에 열의를 가지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스웨덴 장애인 복지정책의 주요 목표는 장애인의 능력과 일상생활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스웨덴 장애인 복지정책과 전달체계는 정책 시행에서부터 장애인 생활에 실제로 미치는 결과까지 정부, 시민사회(비장애인)와 장애인 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책임은 중앙정부와 지방당

국(지방자치단체와 광역시)이 동시에 갖는데, 중앙정부는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계획과 프로그램의 보편성 그리고 혜택분배에 관한 기본원칙과 법을 제정하고 재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광역시 정부는 전반적인 장애인의 보건과 의료 혜택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교육과 직접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학생들은 유치원에서 초등, 중고등, 대학교육까지 전 교육과정을 통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정에서 일상생활에 개별적 지원이 필요할 경우 활동 도우미를 무료로 지원하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개인 대변인 등의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과 일상생활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틀을 규정하는 정부 당국의 의지와 사회연대성을 부여해 주는 시민사회의 환경은 장애인 스스로가 민주적인 조직체계를 구성하기까지 큰 역할을 해 왔고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 조직체가 정부나 시민사회에 영향을 미치도록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왔다. 국민 모두에게 표현의 자유와 창의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것, 국민모두가 문화예술 생활에 참여하고 스스로가 창의적인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경험하는 것, 문화예술교육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에게도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문화예술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수립해 왔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 발간과 레코드 도서관 설립,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연극활동, 수화통역인(사)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술단인 국립예술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수화극단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해 수화를 사용하여 공연을 하고 있으며 수화교실 및 수화연극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한편, 1960년 이후로 통합교육의 시초를 마련한 나라가 스웨덴이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국민고등학교이다. 국민고등학교는 입학이나 졸업에 어떤 자격이나 제한이 없으며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교사와 학생이 함께 전문교육이 아닌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교육을 받는다. 스웨덴 전역에 150여개의 학교가 있는데 중등학교 이후의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스웨덴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고등학교는 장애를 가진 청소년 및 성인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완전통합 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데 디자인, 예술, 문학 분야를 쉽게 접할 수 있고 음악, 조형미술 등 특별한 예술 과목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예술활동을 즐기고 배울 수 있다. 이러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인으로 성장하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표 II-11〉 국민고등학교 프로그램 예시

프로그램	내 용
일반교육과정	스웨덴의 고등학교 과정
치료교육과정	심리 치료 과정
장애인보조원과정	장애인을 위한 전반적 서비스 지원체계를 배우는 과정
사진학과	사진의 기본과 기술을 익히는 과정
선교과정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언어습득과 봉사활동 실시
특수과정	학습부진이나 장애 성인을 위한 재교육 과정
예술과정	그림이나 조형미술을 전공하는 과정

출처: 최현정(2010). 스웨덴의 장애인정책과 문화복지.

또 하나, 1992년에 설립된 스웨덴의 리니아 예술학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기관이다. 자폐아의 부모가 설립한 예술학교로서 현재는 중앙정부로부터 운영비의 50%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고등학교 이후 3년간 전문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예술강사는 모두 전문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매년 스톡홀름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전시회에서는 누가 장애인이고 누가 비장애인이라는 것에 대해 공개하지 않으며 인근 유럽나라의 작가들과 함께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리니아 예술학교 프로그램은 드로잉, 도자기 공예, 그래픽아트, 음악, 문예창작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이후 2주 동안 학교에서 작품활동을 실시한 후 이를 평가한 결과로 입학여부가 결정된다. 리니아 예술학교 졸업생 중 전문예술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스톡홀름예술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는데 유럽 전 지역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전시회 개최 및 작품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으며 전문코치의 지도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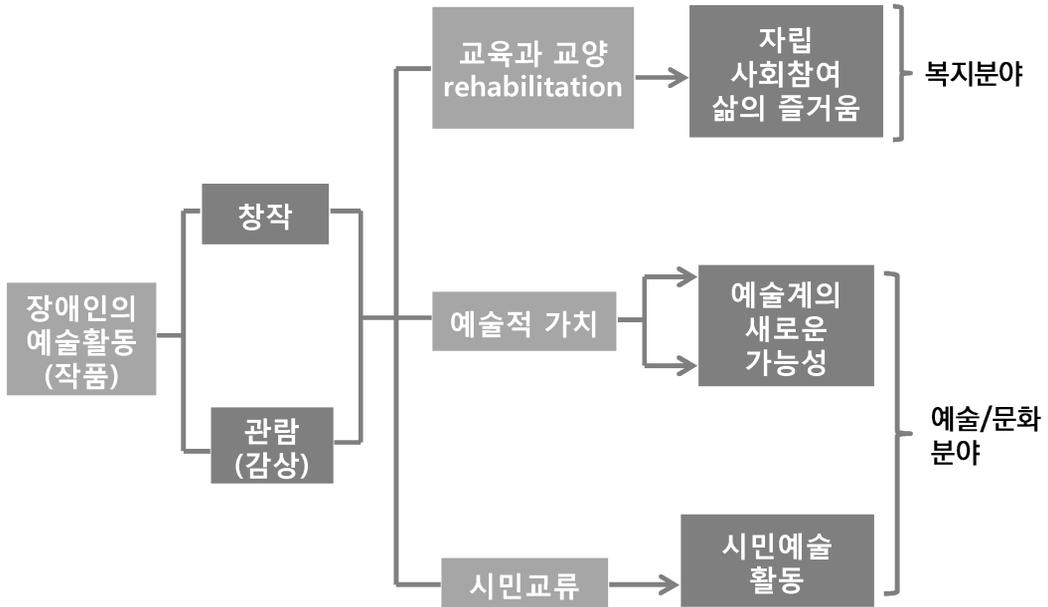
이렇듯 장애인이 학교교육 안에서 편견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재능을 발견하여 사회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스웨덴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음악, 춤, 드라마, 극단에서 장애인들이 활동하고 있다.

나. 일본의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관한 일본의 정책적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93년 국제연합에서 협의되어진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표준규칙」의 영향을 받으면서이다. 여기서는 장애인이 레크레이션과 스포츠, 문화활동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기여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인 예술 활동 전문가 양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2001년에 시행되어진 문화예술진흥기본법에서는 기본시책의 하나로 「고령자, 장애인 등의 문화예술 활동의 충실」(제22조)이 강조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이 전개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西尾, 2010).

일본의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의 특징은 장애보다 예술에 무게를 두고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복지적 마인드에서 벗어나 예술 그 자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예술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확대시키는 운동이 일본에서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시작된 것이 에이블 아트 운동이다. 에이블 아트 운동은 1994년 일본 장애인 예술문화협회가 설립되면서 시작되었고 2000년에는「able art japan」으로 명칭을 변경, 에이블 아트의 정신을 전국의 일반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었으며 현재는 민간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에이블 아트 재팬에서는 장애인이 예술적 표현 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할 기회를 얻게 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이미지를 높이는 것, 또한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표현의 즐거움과 자유를 재발견하여 풍부한 사회와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러한 개성과 창조성이 넘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이 확대되면서 작품 그 자체의 예술성을 평가하려는 움직임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게 되었으며, 장애인 아트 활동으로 경제적 수입을 얻는 장애인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림 II-1〉 에이블 아트의 개념

출처 : 西尾(2002). 에이블 아트의 정책적 의의.

2008년 일본의 후생노동성과 각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정책을 발표하였는데, 첫 번째는 재능 있는 장애인의 발굴과 지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해야 하며 장애인이 쉽게 예술과 문화에 접할 수 있는 접근권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학교교육에서부터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였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와 지역사회 안에서 장애인이 문화예술적 경험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사회적인 지원체제 구축으로 장애예술인을 지원하는 인재육성과 지원단체 창설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03년 「금후의 특별지원교육방안」(최종보고)을 발표하고 이제까지 장애아동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른 교육정책에서 개인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맞춘 특별지원교육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 하에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 관점의 변화, 학교의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체제의 변화, 지방자치제도의 지원 체제 개편 등 다양한 측면으로부터의 변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종래의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었던 장애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고기능 자폐증이 대상아동으로 포함되었으며 이들 개인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능력을 향상시켜 생활과 학습상의 곤란을 개선하기 위한 적합한 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하에 2006년 개정 학교교육법에서는 특수학교를 특별지원학교로, 특수학급은 특별지원학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일본은 학교교육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별지원학교의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교육과정 편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교육과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학교교육법 시행규칙 제129조). 이 학습지도요령은 특별지원학교에서의 교육에 있어 일정한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한 교육과정의 기본으로 각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실시에 있어 이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학생이나 학교의 상황에 따라 각 학교가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되어있어 다양성 있는 학교교육이 보장되어 있다.

특별지원학교의 교과과정을 보면 초등부는 필수교과,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시간 및 특별활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학부는 필수교과, 선택과목, 도덕, 외국어활동, 종합적인 시간 및 특별활동, 고등부는 각 교과, 종합적인 학습의 시간, 특별활동, 자립활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초등부의 필수교과는 생활, 국어, 산수, 음악, 도면공작, 체육이며 중학부와 고등부는 국어, 사회, 수학, 이과, 음악, 미술, 보건체육, 직업/가정이다.

한편, 일본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한 문화예술정책에 힘입어 학교교육에서도 미술, 음악 등의 교과와 특별활동, 자립활동 영역에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음악교과의 목표는 표현 및 감상의 활동을 통해 음악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갖고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며 도면공작교과의 목표는 초보적인 조형활동을 통해 조형표현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고 표현의 기쁨을 느끼는 것이다. 초등학교 음악과 도면공작 교과의 단계별 내용은 <표 II-12> 과 같다.

<표 II-12> 일본 초등학교 음악교과와 도면공작교과의 단계별 내용

내용	음 악	도면공작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을 들으면서 신체를 움직인다. - 음악이 나오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쉬운 타악기를 이용해 소리를 들어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기, 만들기, 장식하기에 관심을 갖는다. - 흙, 나무, 종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조형 놀이를 한다.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아하는 음악과 소리를 즐긴다. - 교사와 친구와 함께 간단한 리듬을 느끼면서 신체를 움직인다. - 타악기를 사용하여 리듬놀이와 합주를 한다. - 좋아하는 노래와 쉬운 연주의 일부분을 노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느낀 점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만들거나 장식한다. - 점토, 크레용, 가위, 풀을 사용하여 만들고 장식한다.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의 노래와 연주를 듣고 다양한 음악에 관심을 갖는다. - 음악에 맞추어 간단한 신체표현을 한다. - 악기를 즐기고 간단한 악보를 보면서 리듬 합주를 한다. - 쉬운 노래를 반주에 맞춰 함께 노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느낀 점이나 상상한 것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만들거나 장식한다. - 다양한 교재와 도구를 사용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 친구와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조형물의 형태 및 색, 표현방법을 안다.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홈페이지. 학습지도요령.

중학교 음악교과의 목표는 표현 및 감상의 능력을 기르고 음악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며 음악을 통해 일상생활을 밝고 즐겁게 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다양한 음악과 악기의 음색을 듣고 음악을 듣고 느낀 감정과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며 타악기 등을 사용하여 자유롭게 연주하거나 합주와 독주 활동을 하고, 가사와 리듬에 맞게 독창, 간단한 합창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술교과에서는 조형활동을 통해 표현과 감상의 능력을 높이고 풍부한 감정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로 경험과 상상을 기반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만들고 전시하는 활동, 다양한 교재를 활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 자연과 조형물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활동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일본의 특별지원교육은 특별한 교육과 관련서비스 두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후자는 교과목 중의 하나인 자립활동을 의미한다. 자립활동의 목표는 각 학생의 자립을 목표로 장애에 의한 학습상 또는 생활상의 곤란을 주체적으로 개선,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및 습관을 길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 지도 내용으로는 건강의 유지, 심리적 안정, 인간관계의 형성, 환경의 파악, 신체의 움직임, 의사소통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영역 안에서도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문화예술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별지원학교의 학생들이 다양화됨에 따라 학교재량으로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장애와 관련된 질병으로 인해 장기간 등교가 어렵거나 등교거부로 인해 학습공백이나 학습지체가 염려되는 장애학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정서적 안정과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예술교과와 자립활동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다.

일본의 특별지원학교 중 츠쿠바 대학 부속 시각장애특별지원학교는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의 고등부 음악과는 시각장애인 음악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음악의 기초에서 전문적인 지식까지 지도하고 있다. 음악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의 실기지도는 물론 음악을 통한 사회와의 소통, 취미와 교양으로서의 음악에 대해 폭넓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입학에 연령의 제한이 없으며 교육과정은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츠쿠바 시각장애 특별지원학교 고등부 음악과 교육내용

보통과목	필수과목	국어종합, 세계사, 현대사회, 수학기초, 이과종합, 보건, 체육, 생활기술, 영어, 쓰기, 자립활동, 정보, 종합적 학습
	선택과목	국어표현, 국어기초, 현대문, 고전, 영어, 쓰기, 읽기, 자립활동, 정보
음악 전문과목	필수과목	음악이론, 음악사, 연주법, 솔페주, 성악, 기악, 작곡
	선택과목	연주법, 기악, 작곡, 민족음악개론

출처: 일본 츠쿠바 시각장애특별지원학교 홈페이지.

1909년에 설립된 국립 농학교인 츠쿠바 대학 부속 청각장애특별지원학교의 경우에는 고등부 전공과에 비즈니스정보과, 조형예술과, 치과기공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조형예술과는 전국 농학교 중 이곳 하나뿐이다. 조형예술과는 미술 코스, 디자인 코스, 생활조형 코스로 분류되어 있는데 미술 코스에서는 수채화, 유화, 판화의 표현기법을 주요내용으로 아크릴이나 컴퓨터 그래픽과 같은 현대적인 기술에 관한 지식도 배울 수 있다. 디자인 코스에서는 색과 형태의 기본적인 평면 및 입체 디자인을 배우며 작품을 제작하고 디자인전에 출품한다. 생활조형 코스에서는 염색과 직조, 수예, 피복에 대해 작품제작을 중심으로 학습하며 공모전 출품과 패션쇼 참가를 통해 전문기술과 디자인 감각을 익힐 수 있다.

이러한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이 전문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 문부과학성에서는 학생지원인(학생지원교사)을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교사를 희망하는 학생이 일반 유치원, 초·중·고 등, 특별지원학교에 파견되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아,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예술계 대학의 학생을 특별지원학교 미술과목에 보조교사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학생이 보조교사로 활동할 경우 수업단위를 인정하고 보험에 가입하며 별도의 지도교수를 배치하는 등의 제반문제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지원교사가 장애학생을 지원하기에 앞서 장애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배울 수 있도록 강습회를 실시하



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단순히 예술계 대학생이 장애학생의 예술교육에 보조교사로서 도움을 주는 목적 이외에 예술계 일반에 장애학생의 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숨겨져 있다. 예술계 대학의 학생과 교수에게 장애인 예술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장애인에게 있어 예술의 중요성과 사회에 나왔을 때 장애인이 아닌 예술인으로서 동등하게 교류할 수 있는 이해도를 심어주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다.

Ⅲ.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특수학교 예술교과(음악, 미술)에 대한 실태조사와 그 중 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졸업 후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특수학교 졸업생 2명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는 전국 특수학교 162개교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9개교를 제외한 15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음악교과의 경우 153개교 중 118개교(77.1%)의 담당교사 181명이 응답하였으며, 미술교과의 경우 153개교 중 98개교(64.1%)의 담당교사 154명이 응답하였다.

1. 음악교과 운영 실태

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특수학교 153개교 중 118교(77.1%)의 음악교과 담당자 총 181명이 설문 조사에 참여 했으며 응답자 중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73.5%, '남성'이 26.5%였다. 조사 대상자인 음악교과 담당 특수교사의 연령대를 살펴본 결과 '30대'가 39.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20대'가 26%, '40대' 23.2%, '50대 이상'이 11.0%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연령별 인구학적 특성 결과는 미술교과도 비슷한 결과로 나타나 이는 특수교육 현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으며 대체로 음악교과 담당 교사들이 30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교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의 경력자'가 38.7%, '5년 이상~10년 미만' 27.6%, '10년 이상~15년 미만' 17.1%, '15년 이상' 16.6%로 나타났다.

〈표 III-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성 별	남	48	26.5
	여	133	73.5
연 령	20대	47	26
	30대	72	39.8
	40대	42	23.2
	50대 이상	20	11.0
경 력	5년 미만	70	38.7
	5년 이상 ~ 10년 미만	50	27.6
	10년 이상 ~ 15년 미만	31	17.1
	15년 이상	30	16.6

2) 근무형태

음악교과 담당 특수교사들의 근무형태를 살펴본 결과 〈표 III-2〉와 같이 전체 응답자 중 무응답 1명을 제외한 62.2%가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37.8%가 ‘기간제(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근무형태

구 분	인원/(명)	비율/(%)
정규직	112	62.2
기간제(비정규직)	68	37.7
기타(무응답)	1	0.1
계	181	100.0

3) 담당 과정(복수응답)

조사 대상자 중 음악교과 담당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학교 과정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 과정’이 39.9%, ‘고등학교 과정’ 35.1%, ‘초등학교 과정’ 22.2%, ‘전공과

과정' 2.8%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음악교과 담당 특수교사들이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공과 운영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3〉 담당 과정(복수응답)

구 분	인원/(명)	비율/(%)
초등학교 과정	55	22.2
중학교 과정	99	39.9
고등학교 과정	87	35.1
전공과 과정	7	2.8
계	248	100.0

4)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전문성) 취득 절차를 조사한 결과 45.9%가 '특수교육(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수교육대학원' 22.7%, '교육대학원' 16%, '사범계열학과 졸업(복수전공)' 9.4%, '특수교육 자격검정' 3.2%, '특수교육관련 학과' 2.8%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4〉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구 분	인원/(명)	비율/(%)
특수교육(학)과 졸업	83	45.9
특수교육관련학과 졸업	5	2.8
사범계열학과 졸업(복수전공)	17	9.4
교육대학원	29	16
특수교육대학원	41	22.7
특수교육 자격검정	6	3.2
합 계	181	100.0

5)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표 Ⅲ-5〉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 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을 묻는 질문에 전체의 48.6%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자격증 모두를 소지’한 경우 36.5%, ‘음악 관련 전공으로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14.9%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85.1%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음악교과를 담당하고 있으나 음악 관련학과 자격증 소지’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구 분	인원/(명)	비율/(%)
특수교사 자격증	88	48.6
일반교사 자격증(음악전공)	27	14.9
특수교사+일반교사 자격증	66	36.5
계	181	100.0

6) 음악 교과 관련 전공과목

〈표 Ⅲ-6〉 음악 교과 관련 전공과목

구 분	인원/(명)	비율/(%)
피아노	15	16
성악	27	28.7
작곡	15	16
관현악	14	14.9
타악	2	2.1
국악	6	6.3
기타	15	16
계	94	100.0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관련 교과 전공 여부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51.9%가 ‘음악 교과를 전공’했다고 대답했다. 음악 전공과목을 살펴보면 ‘성악 전공’이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피아노’와 ‘작곡’, ‘기타 음악 교과 전공’이 각각 16%, ‘관현악’ 14.9%, ‘국악’ 6.4%, ‘타악’ 2.1% 순으로 나타났다.

나. 응답학교의 일반적 사항

대상자인 음악교과 담당 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일반적 사항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특수학교 설립 형태

전체 응답자의 58%가 ‘사립’ 특수학교이며, ‘공립’ 35.9%, ‘국립’ 6.1%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7〉 특수학교 설립 형태별 응답자 수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별 응답자 수	11개교	65개교	105개교	181개교

2) 지역별 현황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지역 소재지를 조사한 결과 ‘경기도’가 22.7%로 가장 많이 있었으며, 다음으로 ‘서울’ 13.3%, ‘부산’ 9.9%, ‘광주’ 7.2%, ‘강원도’와 ‘충북’, ‘경북’, ‘경남’이 각각 5.5%, ‘충남’과 ‘전남’이 4.4%, ‘인천’과 ‘대구’, ‘대전’ 2.8%, ‘제주’ 2.2%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8〉 지역별 응답자 수

시·도	응답자 수	비율/(%)
서울특별시	24	13.3
부산광역시	18	9.9
대구광역시	5	2.8
인천광역시	5	2.8
광주직할시	13	7.2
대전광역시	5	2.8
울산광역시	4	2.2
세종특별자치시	0	0
경기도	41	22.7
강원도	10	5.5
충청북도	10	5.5
충청남도	8	4.4
전라북도	6	3.3
전라남도	8	4.4
경상북도	10	5.5
경상남도	10	5.5
제주특별자치도	4	2.2
계	181	100.0

3) 특수학교 장애유형(복수응답)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장애영역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표 III-9〉와 같이 ‘정신지체(지적장애)’가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지체장애’ 17.7%, ‘정서장애’ 7.2%, ‘시각장애’와 ‘청각장애’가 각각 6.3%로 나타났다.

〈표 Ⅲ-9〉 특수학교 장애유형 (복수응답)

구 분	빈도/(건)	비율/(%)
시각장애	13	6.3
청각장애	13	6.3
지체장애	37	17.7
정신지체	130	62.5
정서장애	15	7.2
합 계	208	100.0

다. 음악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1) 음악교과 시수 및 담당교사 수

주당 음악교과 시수는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40명 응답) 연간으로는 ‘68시간’이 21명 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각 학교별 음악교과 담당 교사 수는 ‘1명’이 가장 많았으며(50명 응답), ‘2명’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40명, ‘3명’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32명 순이었다.

2) 음악교과 시간당 운영 시간 및 음악 교과 운영 장소

음악교과 시간당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과정’(92.5%), ‘중학교 과정’(81.4%), ‘고등학교 과정’(79.6%), ‘전공과 과정’(78.6%) 모두 40분으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음악 교과를 진행하는 운영 장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Ⅲ-10〉과 같이 전체의 63.5%가 ‘특별실(음악실)’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실이 아닌 ‘일반 교실’을 이용하는 경우는 29.2%, ‘기타 장소’는 7.1%로 조사되었다.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과학실 겸 음악실 또는 담당 교사가 상주하고 있는 교실 등 ‘음악 수업을 위한 준비가 갖춰진 장소가 아닌 경우’나 ‘학교 시설 상황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0〉 음악 교과 운영 장소

구 분	인원/(명)	비율/(%)
일반교실	53	29.2
특별실(음악실)	115	63.5
기타	13	7.2
계	181	100.0

3) 음악교과 악기 보유현황(복수응답)

〈표 III-11〉과 같이 음악교과 수업에 필요한 악기의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건반악기’가 22%로 가장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리듬악기’가 20.6%, ‘타악기’ 20.5%, ‘국악기’ 17.8%, ‘현악기’ 7.9%, ‘목관악기’ 6.9%, ‘금관악기’ 2.8%, ‘기타’가 1.5%순서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음악치료 관련 악기’, ‘밴드악기(기타, 드럼, 베이스)’, 각종 ‘오르프 악기’ 또는 ‘핸드벨’ 등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시 사용되는 악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음악 교과 악기 보유 현황

구 분	빈도/(개)	비율/(%)
건반악기	175	22
타악기	163	20.5
현악기	63	7.9
목관악기	55	6.9
금관악기	22	2.8
국악기	141	17.8
리듬악기	164	20.6
기타	12	1.5
계	795	100.0

4)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정규 음악교과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 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1.8%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표 Ⅲ-12>와 같이 응답자의 22.3%가 음악 수업 시 ‘악기를 이용한 기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음악 감상(음악 감상 후 음악 분석하기 등)’ 14.9%, ‘기악과 음악 감상’ 9.6%, ‘가창 및 연주’와 ‘합주’가 각각 6.1%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보여주듯 정규 교과 과정에서도 교과서 수업 이외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과 달리 눈에 띄는 특성화 프로그램으로는 ‘융합인재교육(STEAM)¹⁾’과 ‘음악점자’, ‘음악치료 중심 프로그램’, ‘달크로즈(유리드믹스)²⁾교육’ 등과 같은 수업으로 장애학생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구 분	빈도	비율/(%)
1인 1악기, 학생오케스트라	2	1.3
가창, 악기연주, movement	9	6.1
교과서 및 악기이용	2	1.3
구화 윈드오케스트라	1	0.7

- 1) 융합인재교육(STEAM): 1990년부터 미국에서는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이라는 단어를 통틀어 STEM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후 2006년 STEM에 예술(Art)을 포함시켜 STEAM(융합인재교육)이 탄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수학과 과학 교육에 기술과 공학, 예술교육을 더해 좀 더 흥미로운 탐구와 학습토론, 소통과 협력의 수업을 지향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수업방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 2) 유리드믹스: 세계적인 음악 교육 달크로즈 유리드믹스와 칼 오르프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현 교육 과정에 맞추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감을 통해 듣고, 보고, 느낀 것을 몸으로 표현하고 악기로 연주하여 두뇌와 감각을 개발시키는 통합예술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구 분	빈도	비율/(%)
국악	5	3.4
기악	33	22.3
기악, 음악감상	14	9.6
난타	3	2
달크로즈음악교육(유리드믹스)	2	1.3
대중가요 부르기	2	1.3
리듬악기	3	2.0
무용	2	1.3
뮤지컬(감상)	6	4.0
밴드부	4	2.7
사물놀이	1	0.7
성악, 기악, 음악감상, 창작(작곡)	3	2.0
악보 및 악곡의 이해, 기악	1	0.7
오카리나	1	0.7
오케스트라	2	1.3
요가	1	0.7
율동	4	2.7
융합인재교육(STEAM), 스마트교육	1	0.7
음악 점자	1	0.7
음악 감상(음악 분석)	22	14.9
음악치료중심	1	0.7
음악활동 동아리	1	0.7
전래동요	2	1.3
타악기	1	0.7
풍물	2	1.3
합주	9	6.1
합창	5	3.4
핸드벨	2	1.3
계	148	100

5)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음악교과 담당교사가 현재 지도하고 있는 학생의 장애 유형을 조사한 결과 <표 Ⅲ-13>와 같이 45.5%가 ‘정신지체(지적장애)’이고 그 다음으로는 ‘자폐성장애’가 18.5%, ‘지체장애’ 11.9%, ‘정서·행동장애’ 11.6%, ‘시각장애’ 4.2%, ‘청각장애’ 3.9%, ‘발달지체’ 3.2%, ‘의사소통장애’ 0.6%, ‘학습장애’ 0.3%로 나타났다.

<표 Ⅲ-13> 음악교과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구 분	빈도/(건)	비율/(%)
시각장애	14	4.2
청각장애	13	3.9
정신지체	153	45.5
지체장애	40	11.9
정서·행동장애	39	11.6
의사소통장애	2	0.6
학습장애	1	0.3
자폐성장애	62	18.5
건강장애	1	0.3
발달지체	11	3.2
계	336	100

6) 음악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지도 학생의 대회 참가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7%가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내외 발표회’ 34.9%, ‘장애인 예술대회’ 19.4%, ‘비장애인 예술대회’ 7.1%, ‘기타’ 3.2% 순으로 조사되었다.

음악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 학생을 인솔하여 참여한 대회의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연간 1회 이하’가 78.5%로 나타났다.



〈표 III-14〉 음악 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구 분		인원/(명)	비율/(%)
대회 경력 (복수응답)	장애인 예술대회	49	19.4
	비장애인 예술대회	18	7.1
	교내·외 발표회	88	34.9
	참가한적 없음	89	35.3
	기타	8	3.2
계		252	100.0
대회 참가 횟수 (연간)	1회 이하	142	78.5
	2회	19	10.5
	3회	6	3.3
	4회 이상	14	7.7
계		181	100.0

7) 음악교과에 대한 이해도

〈표 III-15〉 음악 교과에 대한 이해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40	22.1
그렇다	84	46.5
보통이다	52	28.7
그렇지 않다	4	2.2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계	181	100.0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과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 46.5%, ‘보통이다’ 28.7%, ‘매우 그렇다’

22.1%, ‘그렇지 않다’ 2.2%, ‘전혀 그렇지 않다’ 0.5%로 전반적으로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 교과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 음악교과 주체별 참여 정도

음악교과 운영 시 반영되는 주체별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표 III-16>과 같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는 음악 교과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53.6%가 교과 운영 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특성과 욕구를 반영하여 진행에 대해 ‘그렇다’라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보통이다’ 22.1%, ‘매우 그렇다’ 21.6%, ‘그렇지 않다’ 2.2%, ‘전혀 그렇지 않다’ 0.5%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7.3%가 대상학생을 고려한 수업 운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부모가 음악교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보통이다’ 4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다’ 24.9%, ‘그렇지 않다’ 14.9%, ‘매우 그렇다’ 8.3%, ‘전혀 그렇지 않다’ 2.2%로 전체 응답자의 82.9%가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질문에는 대상자의 49.7%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그렇다’ 23.8%, ‘그렇지 않다’ 16%, ‘매우 그렇다’ 7.7%, ‘전혀 그렇지 않다’ 2.8% 순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음악교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 장애학생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교과 운영 지원에 가정 및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16〉 음악 교과 주체별 참여 정도

항 목	구 분	인원/(명)	비율/(%)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욕구 반영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0.5
	그렇지 않다	4	2.2
	보통이다	40	22.1
	그렇다	97	53.6
	매우 그렇다	39	21.6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4	2.2
	그렇지 않다	27	14.9
	보통이다	90	49.7
	그렇다	45	24.9
	매우 그렇다	15	8.3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5	2.8
	그렇지 않다	29	16
	보통이다	90	49.7
	그렇다	43	23.8
	매우 그렇다	14	7.7

9) 음악교과 시설 및 인력 여건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III-17〉과 같다. 음악교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 환경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35.9%가 학교 시설 및 기자재의 확보가 ‘보통’이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는 ‘그렇다’ 37%, ‘매우 그렇다’ 14.3%, ‘그렇지 않다’ 11.6%, ‘전혀 그렇지 않다’ 1.1%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를 담당하는 담당교사의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35.9%, ‘그렇다’ 29.3%, ‘매우 그렇다’ 14.9%, ‘그렇지 않다’ 16%, ‘전혀 그렇지 않다’ 3.9%로 전체 응답자의 80.1%가 담당 교사의 자격 기준이 제

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교과 운영 시 배정되는 교사 인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질문에는 ‘보통이다’ 39.8%, ‘그렇다’ 24.9%, ‘그렇지 않다’ 22.6%, ‘매우 그렇다’ 7.8%, ‘전혀 그렇지 않다’ 5%로 전체 응답자의 72.5%가 교과 담당 교사 배정의 인원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 음악 교과 프로그램 시설 및 인력 여건

항 목	구 분	인원/(명)	비율/(%)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1.1
	그렇지 않다	21	11.6
	보통이다	65	35.9
	그렇다	67	37
	매우 그렇다	26	14.3
담당 교사 자격 기준	전혀 그렇지 않다	7	3.9
	그렇지 않다	29	16
	보통이다	65	35.9
	그렇다	53	29.3
	매우 그렇다	27	14.9
음악교과 담당 인원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9	5
	그렇지 않다	41	22.6
	보통이다	72	39.8
	그렇다	45	24.9
	매우 그렇다	14	7.8

라.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

1)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

음악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의 운영에 대한 의견(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음악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87.8%가 음악 교과가 ‘적절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 음악 교과 운영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구 분	인원/(명)	비율/(%)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56	30.9
보통이다	103	56.9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16	8.8
생각해 보지 않았다	6	3.3
계	181	100.0

〈표 III-18〉의 결과에서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31.3%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미비’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과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 각각 25%,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 12.5%, ‘기타’ 6.3%로 나타났다.

〈표 III-19〉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원인

구 분	인원/(명)	비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	5	31.3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2	12.5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4	25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대한 인식부족	4	25
기타	1	6.3

2)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표 Ⅲ-20>과 같이 전체의 65.2%가 음악교과 담당 교사는 ‘음악분야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13.5%, ‘일반교사(음악)자격증 소지자’로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자’ 11%, ‘문화예술 음악 분야 전공자’ 8.3%, ‘기타’ 1.7%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음악교과 담당을 위한 교사의 자격 요건으로 음악분야를 전공한 교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20> 음악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구 분	인원/(명)	비율/(%)
음악 분야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118	65.2
문화예술 음악 분야 전공자	15	8.3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4	13.5
실기 및 직업재활 전공자	1	0.5
일반교사(음악)자격증 소지자로 일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	20	11
기 타	3	1.7
계	181	100.0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특수교육 연수 이외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전체의 79.6%가 ‘참여한 경험이 없다’고 답했으며,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4%로 나타났다.

〈표 III-21〉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구 분	인원/(명)	비율/(%)
있 다	37	20.4
없 다	144	79.6
계	181	100.0

위의 〈표 III-21〉에서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55.8%가 ‘직무연수’를 받았고, 나머지 44.2%가 ‘자율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의 시간은 평균적으로 ‘30시간’ 정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희망하는 음악교과 운영 형태

〈표 III-22〉 희망하는 음악교과 운영 형태

구 분	인원/(명)	비율/(%)
직업훈련과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20	11
기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5	2.8
기본 교육과정과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이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149	82.3
교과 운영에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5	2.8
기타	2	1.1
계	181	100.0

향후 음악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 형태 및 보완점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22〉와 같다. 조사 대상자 중 전체의 82.3%가 음악 교과 프로그램이 ‘여가 및 취미생활이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고 대답했으며, ‘직업훈련 연계 가능한 형태’가 11%, ‘기본 교과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현실적 지원이 미비한 것을 감안하여 최소한으로 운영’해야 한다가 각각 2.8%, ‘기타’ 1.1%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음악교과 담당 교사들은 음악교과가 기본 교과 활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분야로 활용할 수 있는 교과 운영 형태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음악교과 운영 시 보완 내용(복수응답)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서 가장 보완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9.8%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담당 교사 양성 및 교육’ 23.9%,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립’ 25.2%,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이 1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23〉 음악교과 운영 시 보완사항

구 분	비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39.8
담당교사의 양성 및 교육	23.9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립	25.2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	11
계	100.0

6)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음악활동 유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음악활동으로 주로 어떤 활동들이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2.4%가 ‘동아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을 실시하지 않는다’가 23.2%, ‘자율 활동’ 13.8%, ‘봉사활동’이 0.5%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과 특성상 그룹 형태의 동아리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 진행되는 음악활동 내용으로는 ‘난타’, ‘기악’, ‘사물놀이’, ‘풍물’, ‘국악’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4〉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음악활동 유무

구 분	인원/(명)	비율/(%)
자율활동	25	13.8
동아리활동	113	62.4
봉사활동	1	0.5
진로활동	0	0
실시하지 않음	42	23.2
합 계	181	100.0

2. 미술교과 운영 실태

가.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1)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조사 대상 153개교 중 98교(64.1%)의 미술교과 담당자 총 154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자 중 성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여성’이 81.2%, ‘남성’이 18.8%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27.3%, ‘30대’ 33.1%, ‘40대’ 26.6%, ‘50대 이상’ 13%로 미술교과 담당 특수교사의 연령대가 ‘20~30대’가 많았으며 ‘50대 이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특수교육 경력을 조사한 결과 ‘5년 미만’의 경력자가 4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22.7%, ‘5년 이상~10년 미만’ 18.2%, ‘10년 이상~15년 미만’ 17.5%로 나타났다.

〈표 Ⅲ-25〉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특성

구 분		인원/(명)	비율/(%)
성 별	남	29	18.8
	여	125	81.2
연 령	20대	42	27.3
	30대	51	33.1
	40대	41	26.6
	50대 이상	20	13
경 력	5년 미만	64	41.6
	5년 이상 ~ 10년 미만	28	18.2
	10년 이상 ~ 15년 미만	27	17.5
	15년 이상	35	22.7

2) 근무형태

조사 대상의 근무형태를 알아본 결과 〈표 Ⅲ-26〉과 같이 전체 응답자의 59.7%가 ‘정규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0.3%가 ‘기간제(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근무형태

구 분	인원/(명)	비율/(%)
정규직	92	59.7
기간제(비정규직)	62	40.3
계	154	100.0

3) 담당 과정(복수응답)

현재 담당하고 있는 학교 과정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4%가 ‘중학교 과정’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고등학교 과정’ 35%, ‘초등학

교 과정' 22.6%, '전공과 과정' 2% 순서로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음악교과와 마찬가지로 전공과 운영이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27〉 담당 과정(복수응답)

구 분	인원/(명)	비율/(%)
초등학교 과정	46	22.6
중학교 과정	82	40.4
고등학교 과정	71	35
전공과 과정	4	2
계	203	100.0

4)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특수교사 자격(전문성)취득 절차를 조사한 결과 〈표 III-28〉과 같이 전체 대상자의 52.6%가 '특수교육(학)과'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특수교육대학원' 18.2%, '교육대학원' 15.6%, '사범계열학과(복수전공) 졸업' 6.5%, '특수교육 자격 검정' 4.5%, '특수교육관련 학과' 2.6%로 나타났다.

〈표 III-28〉 특수교사 자격 취득 과정

구 분	인원/(명)	비율/(%)
특수교육(학)과 졸업	81	52.6
특수교육관련학과 졸업	4	2.6
사범계열학과 졸업(복수전공)	10	6.5
교육대학원 졸업	24	15.6
특수교육대학원	28	18.2
특수교육 자격검정	7	4.5
계	154	100.0

5)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절반 이상인 55.8%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한 경우 35.1%, ‘미술 관련 전공으로 일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9.1%로 나타났다.

〈표 Ⅲ-29〉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구 분	인원/(명)	비율/(%)
특수교사 자격증	86	55.8
일반교사 자격증(미술관련전공)	14	9.1
특수교사 + 일반교사	54	35.1
계	154	100.0

6) 미술교과 관련 전공과목

〈표 Ⅲ-30〉 미술교과 관련 전공과목

구 분	인원/(명)	비율/(%)
서양화	12	7.8
동양화	8	5.2
조소	6	3.9
디자인	11	7.1
미술교육	33	21.4
공예	11	7.1
기타	73	47.4
계	154	100.0

미술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관련 과목 전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표 III-30>과 같다. 전체 응답자의 47.4%가 ‘설문 문항 외 미술 전공’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미술교육’ 전공 21.4%, ‘서양화 전공’ 7.8%, ‘디자인 전공’ 7.1%, ‘공예 전공’ 7.1%, ‘동양화 전공’ 5.2%, ‘조소 전공’ 3.9%로 나타났다. 기타 미술 전공 과목을 살펴보면 ‘미술치료’ 또는 ‘도예 전공’, ‘한국화’ 등의 관련 전공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응답학교의 일반적 사항

대상자인 미술교과 담당교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1) 특수학교 설립 형태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설립 형태를 살펴보면 <표 III-31>과 같이 ‘사립’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교가 전체 중 82개 학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공립’ 특수학교 66개 학교, ‘국립’ 특수학교 6개 학교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III-31> 특수학교 설립 형태별 응답자 수

구 분	국립	공립	사립	계
학교별 응답자 수	6개교	66개교	82개교	154개교

2) 지역별 현황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고 있는 특수학교의 소재지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22.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서울’ 15.6%, ‘부산’ 11%, ‘광주’ 7.8%, ‘강원도’ 5.2%, ‘인천’ 5.2%, ‘전북’ 4.6%, ‘충북’과 ‘경남’ 3.9%, ‘대구’와 ‘대전’ 그리고

‘경북’이 각각 3.3%, ‘울산’과 ‘충남’, ‘전남’이 각각 2.6%, ‘제주’ 2%, ‘세종특별자치시’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32〉 지역별 응답자 수

구 분	인원수	비율/(%)
서울특별시	24	15.6
부산광역시	17	11
대구광역시	5	3.3
인천광역시	8	5.2
광주직할시	12	7.8
대전광역시	5	3.3
울산광역시	4	2.6
세종특별자치시	1	0.7
경기도	35	22.7
강원도	8	5.2
충청북도	6	3.9
충청남도	4	2.6
전라북도	7	4.6
전라남도	4	2.6
경상북도	5	3.3
경상남도	6	3.9
제주특별자치도	3	2.0
계	154	100.0

3) 특수학교 장애유형(복수응답)

조사 대상의 특수학교의 장애영역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지적장애)’가 64%로 전체 장애 중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은 ‘지체장애’ 15.2%, ‘시각장애’ 7.9%, ‘청각장애’ 6.8%, ‘정서장애’ 6.2%로 나타났다.

〈표 III-33〉 특수학교 장애유형(복수응답)

구 분	빈도/(건)	비율/(%)
시각장애	14	7.9
청각장애	12	6.8
지체장애	27	15.2
정신지체	114	64.0
정서장애	11	6.2
계	178	100.0

다. 미술교과 운영에 관한 사항

1) 미술교과 시수 및 담당교사 수

주당 미술교과 시수는 ‘2시간’이 가장 많았으며(40명 응답) 연간으로는 ‘68시간’이 20명 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각 학교별 미술교과 담당 교사 수는 ‘1명’이 가장 많았으며(48명 응답), ‘2명’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33명, ‘3명’이라고 응답한 학교가 31명 순이었다.

2) 미술교과 시간당 운영 시간 및 운영 장소

미술교과 시간당 운영시간은 ‘초등학교 과정’(92.5%), ‘중학교 과정’(79.6%), ‘고등학교 과정’(79.0%), ‘전공과’(82.1%) 모두 40분으로 응답한 교사가 가장 많았다.

미술교과를 진행하는 운영 장소가 별도로 설치·관리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교과 진행 장소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47.4%가 '학급 교실'에서 미술교과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특별실' 또는 '미술실' 44.8%, '기타' 7.8%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공예실', '일상생활 훈련실' 또는 '담당교사가 상주하는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4〉 미술교과 운영 장소

구 분	인원/(명)	비율/(%)
학급교실	73	47.4
특별실(미술실)	69	44.8
기 타	12	7.8
합 계	154	100.0

3) 미술교과 교구 보유현황(복수응답)

〈표 Ⅲ-35〉 미술교과 교구 보유 현황

구 분	빈도/(개)	비율/(%)
그림 도구	146	35.5
공예 도구	102	24.8
도자기 도구	58	14.1
목공예 도구	31	7.5
조소 도구	61	14.8
기타	13	3.2
계	411	100.0

〈표 Ⅲ-35〉과 같이 미술교과 수업에 필요한 미술 도구의 보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그림 도구'가 전체의 3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예 도구' 24.8%, '조소 도구' 14.8%, '도자기 도구' 14.1%, '목공예 도구' 7.54%, '기타 도구' 3.2%으로 나타났다. 기타의 경우 '서예 도구' 또는 '판화 도구', '카메라', '디자

인’, ‘인쇄기(플로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 등 미술과 관련된 특수도구를 보유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교과 운영 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

정규 미술교과 과정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 전체 조사 대상자 59.7%가 ‘특성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미술교과 운영 중 진행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은 <표 III-36>과 같다. 미술교과 운영 중 편성 되는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분야가 15.2%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는 ‘사진’ 11.9%, ‘공예’ 10.9%, ‘미디어관련’ 6.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시각디자인’이나 ‘애니메이션’, ‘컴퓨터 그래픽’ 등의 활동과 ‘미술과 심리 행동 치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활동’, ‘미술 연계 프로그램(미술관 견학)’ 등을 적극 활용하여 미술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36>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

구 분	빈도/(명)	비율/(%)
감 상	1	1.1
공 예	10	10.9
구 성	1	1.1
도 예	2	2.1
도자기	4	4.3
동아리 활동	1	1.1
디자인	14	15.2
명화감상 및 체험	3	3.3
목공예	1	1.1
미디어	6	6.5

구 분	빈도/(명)	비율/(%)
미술관 견학	2	2.1
미술활동을 통한 심리 행동 치료	2	2.1
민화	1	1.1
북 아트	1	1.1
사진	11	11.9
상업 디자인	1	1.1
생활 공예/미술(오감놀이)	2	2.2
소조	1	1.1
수채화 및 색연필화	2	2.2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1	1.1
시지각 발달 및 표현력 향상	1	1.1
영화	1	1.1
오브제 및 콜라주	1	1.1
일러스트	2	2.1
조각(색칠하기, 찢기, 붙이기 등)	3	3.3
종이접기	3	3.3
창작공예	1	1.1
찾아가는 미술	1	1.1
컴퓨터 그래픽	1	1.1
클레이아트	1	1.1
키네틱아트	1	1.1
토일 페인팅	1	1.1
판화	1	1.1
폼아트	1	1.1
한지공예	1	1.1
협동작품 만들기	1	1.1
회화	4	4.3
계	92	100.0

5)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현재 미술교과 담당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장애학생의 장애유형을 조사한 결과 '정신지체(지적장애)'가 4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자폐성장애' 19.5%, '지체장애' 11.7%, '정서·행동장애' 10.6%, '시각장애' 4.3%, '청각장애' 3.6%, '발달지체' 3.2%, '학습장애' 9.4%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7〉 미술교과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복수응답)

구 분	빈도/(건)	비율/(%)
시각장애	12	4.3
청각장애	10	3.6
정신지체	132	46.8
지체장애	33	11.7
정서 및 행동장애	30	10.6
의사소통장애	0	0
학습장애	1	0.4
자폐성장애	55	19.5
건강장애	0	0
발달지체	9	3.2
계	282	100.0

6) 미술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미술 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 중 대회 참가 경력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표 III-38〉과 같다. 미술교과 담당 교사가 지도하고 있는 대상 학생이 미술 관련 대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해본 결과 전체의 68.6%가 '대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상 학생들이 참여한 대회의 중

류를 살펴보면 32.7%로 ‘장애인 예술대회’가 가장 많았으며, ‘교내외 발표회’가 29.4%, ‘참가한 적 없음’ 29.4%, ‘비장애인 예술대회’ 6.5%순으로 조사되었다.

미술교과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을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한 횟수를 조사한 결과 연간 ‘1회 이하’ 참가한 경우가 전체의 7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2회’가 16.2%, ‘3회’가 4.6%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제한적인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Ⅲ-38〉 미술교과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구 분		인원/(명)	비율/(%)
대회 경력 (복수응답)	장애인 예술대회	70	32.7
	비장애인 예술대회	14	6.5
	교내외 발표회	63	29.4
	참가한적 없음	63	29.4
	기타	4	1.9
계		214	100.0
대회 참가 횟수 (연간)	1회 이하	122	79.2
	2회	25	16.2
	3회	7	4.6
	4회 이상	-	-
계		154	100.0

7) 미술교과에 대한 이해도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이해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과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3.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 31.7%, ‘매우 그렇다’ 19.5%, ‘그렇지 않다’ 4.6%, ‘전혀 그렇지 않다’ 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미술교과에 대한 목적 및 취지에 대한 이해도

구 분	빈도/(명)	비율/(%)
매우 그렇다	30	19.5
그렇다	67	43.5
보통이다	49	31.7
그렇지 않다	7	4.6
전혀 그렇지 않다	1	0.7
계	154	100

8) 미술교과 주체별 참여 정도

미술교과 운영 시 반영되는 주체별 참여 정도를 살펴보면 〈표 III-40〉과 같다.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특성과 개별 학생의 욕구에 맞는 미술교과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고 대답한 대상자가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보통이다’ 27.3%, ‘매우 그렇다’ 23.4%, ‘그렇지 않다’ 3.2%, ‘전혀 그렇지 않다’ 1.3%로 조사 대상자 대부분이 미술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장애학생의 장애 특성이나 욕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보통이다’가 53.3%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 22.1%, ‘그렇지 않다’ 16.2%, ‘매우 그렇다’ 7.1%, ‘전혀 그렇지 않다’ 1.3%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 지역사회 관심과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물음에는 ‘보통이다’가 51.3%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그렇지 않다’ 19.5%, ‘그렇다’ 18.2%, ‘매우 그렇다’ 5.8%, ‘전혀 그렇지 않다’ 5.2%로 나타났다.

〈표 Ⅲ-40〉 미술교과 프로그램 주체별 참여 정도

내 용	구 분	인원/(명)	비율/(%)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욕구 반영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1.3
	그렇지 않다	5	3.2
	보통이다	42	27.3
	그렇다	69	44.8
	매우 그렇다	36	23.4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2	1.3
	그렇지 않다	25	16.2
	보통이다	82	53.3
	그렇다	34	22.1
	매우 그렇다	11	7.1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의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8	5.2
	그렇지 않다	30	19.5
	보통이다	79	51.3
	그렇다	28	18.2
	매우 그렇다	9	5.8

9) 미술교과 시설 및 인력 여건

미술교과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기자재 확보 및 시설 관리 여건에 대한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36.4%가 시설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다'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 31.8%, '그렇지 않다' 15.6%, '매우 그렇다' 10.4%, '전혀 그렇지 않다' 5.8%로 나타났다.

미술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전체 대상자의 31.8%가 '보통이다'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 '그렇다' 26%, '그렇지 않다' 24%, '매우 그렇다' 13%, '전혀 그렇지 않다' 5.2%로 나타났다.

미술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인원이 충분한지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응답자의 38.3%가 ‘보통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그렇다’ 24%, ‘그렇지 않다’ 23.4%, ‘매우 그렇다’ 10.4%, ‘전혀 그렇지 않다’ 3.9% 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1〉 미술교과 시설 및 인력 여건

내 용	구 분	인원/(명)	비율/(%)
학교 시설 및 기자재 확보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9	5.8
	그렇지 않다	24	15.6
	보통이다	49	31.8
	그렇다	56	36.4
	매우 그렇다	16	10.4
담당 교사 자격 기준 여부	전혀 그렇지 않다	8	5.2
	그렇지 않다	37	24
	보통이다	49	31.8
	그렇다	40	26
	매우 그렇다	20	13
미술 교과 담당 인원 적절성	전혀 그렇지 않다	6	3.9
	그렇지 않다	36	23.4
	보통이다	59	38.3
	그렇다	37	24
	매우 그렇다	16	10.4

라. 미술교과 담당 교사의 인식

1)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의 인식

미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조사 대상자의 운영에 대한 의견(교육과정 편성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미술교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8%가 ‘보통이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35%,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12.3%, ‘생각해 보지 않았다’ 3.9%, ‘기타’ 0.7% 순으로 조사되었다. ‘기타’라고 답변한 응답자의 의견을 살펴보면 현재의 편성 지침이 예술교육 안에서 미술과 음악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미술 수업시수가 적어져 ‘잘 운영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표 Ⅲ-42〉 미술교과 운영에 대한 교사 인식

구 분	인원/(명)	비율/(%)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54	35
보통이다	74	48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19	12.3
생각해 보지 않았다	6	3.9
기타	1	0.7
계	154	100.0

미술교과 운영에 있어 담당 교사가 교과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8.8%가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대답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가 26.8%,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19%,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13.1%, ‘기타’ 의견이 11.1%,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부족’ 1.2% 순으로 나타났다. 미술교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미술 교과 배당 시수 부족’, ‘장애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과 운영의 어려움’, ‘학교장의 편향적인 운영 방침’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표 III-43〉 미술교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 원인

구 분	인원/(명)	비율/(%)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	41	26.8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29	19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20	13.1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대한 인식부족	44	28.8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부족	2	1.3
기타	17	11.1

2) 미술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미술교과를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 요건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인식을 살펴보면 대상자 절반 이상인 61%가 ‘미술 분야를 전공하고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가 미술 교과를 담당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23.4%, ‘일반교사(미술)자격증 소지자’로 일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자’ 7.1%, ‘미술 분야 전공자’ 4.6%, ‘기타’ 2.6%, ‘실기 및 직업재활 전공자’ 1.3%로 나타났다.

〈표 III-44〉 미술교과 담당 교사의 자격 요건

구 분	인원/(명)	비율/(%)
미술 분야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94	61
문화예술 미술 분야 전공자	7	4.6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36	23.4
실기 및 직업재활 전공자	2	1.3
일반교사(미술)자격증 소지자로 일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	11	7.1
기 타	4	2.6
계	154	100.0

3)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조사 대상자 중 지난 1년 동안 특수교육 연수 이외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는 전체의 31.2%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 중 50.9%가 ‘자율연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49.1%가 ‘직무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연수 시간은 보통 ‘30시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5〉 특수교육 관련 연수 경험 여부

구 분	인원/(명)	비율/(%)
있 다	48	31.2
없 다	106	68.8
계	154	100.0

4) 희망하는 미술교과 운영 형태

향후 미술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운영 형태 및 보완점에 대한 담당교사의 인식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III-46〉과 같다. 조사 대상자 중 ‘일상생활에서 여가 및 취미로 연계 가능한 형태의 교과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68.2%로 가장 높았고, ‘직업훈련 연계 가능한 형태’가 22.1%, ‘기본 교과 과정 범위 내에서의 운영’이 7.1%, ‘기타’ 2.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장애학생들이 교과 과정에 얽매이지 않은 환경에서 시대에 맞는 다양한 미술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는 미술교과 담당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미술교과 운영 방식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II-46〉 희망하는 미술교과 운영 형태

구 분	인원/(명)	비율/(%)
직업훈련과 연계 가능한 문화예술교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34	22.1
기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11	7.1
기본 교육과정과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이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105	68.2
교과 운영에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0	0.0
기 타	4	2.6
계	154	100.0

5) 미술교과 운영 시 보완사항(복수응답)

조사 대상자들이 인식하는 미술교과 프로그램의 보완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38.5%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다음으로는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가 26.8%, '담당교사 양성 및 교육'이 17.6%, '인식 개선'이 16.9%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담당 교사들이 미술교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이 다양한 미술교과 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본 교과 시스템 및 교과내용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Ⅲ-47〉 미술교과 운영 시 보완사항(복수응답)

구 분	비율/(%)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38.5
담당교사의 양성 및 교육	17.6
행정·재정적 지원 체계의 확립	26.8
문화예술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	16.9
계	100.0

6)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 유무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미술활동의 운영 형태를 조사한 결과 창의적 체험활동 안에서의 실시하는 미술 프로그램으로 ‘동아리 활동’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미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다’ 32.5%, ‘자율활동’ 22.7%, ‘진로활동’ 1.3% 순으로 나타났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미술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소그룹 형태의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미술 활동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도 높게 차지하고 있어 기본 교과 과정 외에 미술 활동 적용의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시 진행되는 미술 활동 내용으로는 ‘공예’, ‘종이접기’, ‘그리기’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8〉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에서 미술활동 유무

구 분	인원/(명)	비율/(%)
자율활동	35	22.7
동아리활동	67	43.5
봉사활동	0	0.0
진로활동	2	1.3
실시하지 않음	50	32.4
계	154	100.0

3.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질적 조사(FGI)

가.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현장 조사

본 실태조사에 참여한 153개교 특수학교 가운데 장애유형과 지역을 안배하고 문화예술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 과정을 실시하고 있는 특수학교 4개교를 선정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다.

1) 방문 학교 1

- ① 방문 지역/장애영역 : 서울/정신지체
- ① 방문 일시 : 2013. 6. 28(금) 오전 10시 30분 ~ 오후 1시
- ① 면담자 : 김○○(음악), 조○○(미술), 남○○(미술, 음악)
- ① 시설건축 : 음악실(초등, 중등)
- ① 주요 인터뷰 내용

미술, 음악 전공 교사가 각각 1명씩 있으며 음악과 미술에 관심이 없는 교사도 학교 상황에 따라 예술 교과를 맡을 수 있다. 음악, 미술 모두 교과 과정에 충실히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특성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방과 후 교실에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료 목적의 예술 활동은 운영되고 있다.

음악교과의 경우, 학생들에게 각각 하나씩 악기가 돌아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고 학생들이 종종 악기를 부수기도 해서 악기를 구입해야 하지만 악기가 워낙 고가인데다 예전에 비해 예술교육에 대한 예산이 줄어서 어려움이 있다. 음악교과 수업은 지적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학생들이 기본적인 음악적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교육은 기본 교육과정에 따라 실시되고 개별교육이 힘든 어려움이 있으며 초등부의 경우 통합적 교과 과정이 운영되고 있어 담임교사 재량에 따라 예술교육이 조절되기 때문에 예술교육의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위해 재능기부가 필요한데

일반학교에 비해서는 재능기부 현황이 현격히 적어 아쉽다. 피아노 레슨 등 지원 프로그램은 3개월의 교육 기간이 정해져있고 한 학생에게만 지원을 할 수 없어서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희망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피아노 레슨을 해주지 못해 재능을 개발해주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따라서 예술교육을 받고 싶은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예술 바우처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학생들이 예술적 재능을 보일 수 있는 기회는 학예발표회, 부활절, 창의적 체험 시간으로 이런 기회에 무대에 올라가는 학생은 학교에서 스타가 되기도 한다.

장애학생들에게 문화예술적 체험 기회로 가족과 함께 공연이나 전시회를 관람하게 하고 공연팀이 학교로 와서 공연을 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예술교육은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수업으로 다른 수업 시간에는 멍하니 앉아있던 학생들도 예술수업시간에는 적극성을 보이고 즐거워하며 따라서 문제 행동이 줄어들기도 한다.

미술교과 수업에 있어 모래놀이 활동을 20분하기 위해 2시간을 교사 혼자서 정리해야하는 부분 등 어려움이 있으며 장애학생들이 자유로운 미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미술 공간이 필요하다.

졸업 후의 진로 문제 때문에 학부모는 직업교육을 더 선호하며 학부모의 욕구가 바뀌어야 학교 교육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술교육은 사회와 연계되어야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특수교육은 의료, 복지, 고용 등과 연계가 잘 되지 않고 고립되어 있어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

장애인 미술대회는 있는데 음악대회는 적어서 음악재능 발표의 기회가 적고 일반대회는 접수조차 안되는 경우가 있다. 특수학교 부분을 별도로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다.

① 특이사항

김○○ 교사는 일반 중고등학교 음악교사 출신으로 현재는 초등학교 과정 교과를 담당하며 음악실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음악실에서 병아리를 부화시켜 지적장애학생의 정서 함양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음악 교과서 제작에 직접 참여하는 등 지적장애학생 음악 교육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2) 방문 학교 2

- ① 방문지역/장애영역 : 인천/시각장애
- ① 방문일시 : 2013. 6. 28(금) 오후 2시 30분 ~ 오후 4시
- ① 면담자 : 신○○(음악사), 김○○(미술), 강○○(홍보)
- ① 시설견학 : 음악실, 미술실
- ① 주요 인터뷰 내용

2명의 예술 교사가 24학급의 수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초등1, 2학년은 예술교육이 없다. 감각장애 학생들이라서 공통 교육과정에 따르기 때문에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미술교재가 없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든 보조교재가 있는데 시각장애미술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 초등학교에서는 경험 위주로 미술교육을 실시하고 중학교는 표현 교육, 그리고 고등학교는 창의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미술교육은 손으로 만져서 인식할 수 있는 조각에서부터 시작해서 평면 작업을 실시하는데 색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전국에 11개 맹학교 미술교사 등 5개교와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 미술공모전과 일반미술대회에 출품하고 있는데 장애인대회에서는 수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대회에서는 입상경력이 아직 없다. 시각장애인미술공모전은 별도로 없는 상황이다. 교내 전시회가 2년에 한번 있고 외부 전시회도 있었는데 지원 프로그램이 끝나 현재는 전시회 계획은 없다. 지원 프로그램이 단발성이라서 지속하기 어려운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장기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외부전시회의 경우 창조출품 형태이고 공동 참여가 아니라 장애인 작품이 열외로 취급당하기도 한다. 80여명의 학생을 미술교사 한명이 가르치고 있어서 학생 개개인을 위한 개별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음악교과의 경우 음악실이 좁다는 불편감이 있다. 학년이 어릴 때는 클래식을 선호하고 성장 할수록 대중 음악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3년 전 특성화교육의 일환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학생 모두에게 악기를 지급하고 학생 60명, 교사 40명 총 100명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했다. 악기 구성에서 원하지 않은 파트를 맡게 되면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 싫어해서 학생들이 원하

는 악기를 선택하도록 하고 졸업생도 단원에 포함시켜서 현재 40여명으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다.

왼손만 사용할 수 있는 학생에게 피아노를 개별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장애인 예술제 참가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러한 목표가 생기자 아주 좋아하고 있으며 이 희아처럼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한다. 음악은 개인적으로도 대회에 참여하는데 그런 학생은 개인 레슨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

교육과정의 틀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특수학교 예술교육 연구팀을 구성해서 장애학생 예술교육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예술 수업은 문화적 경험을 향유해서 우리 사회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 수혜자가 아니라 문화 창조자가 되면 자존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진짜 작가가 된 것 같아요”라고 좋아하면 “너 작가야”라고 자신감을 준다).

예술로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이 5명 정도 있는데 예술 전공 후의 진로 불투명으로 적극적으로 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① 특이사항

김○○ 교사 지도로 미술실이 잘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각장애학교에도 미술수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3) 방문 학교 3

- ① 방문지역/장애영역 : 원주/정신지체
- ① 방문일시 : 2013. 7. 12(금) 오전 10시 ~ 11시
- ① 면담자 : 박○○(미술)
- ① 시설견학 : 없음
- ① 주요 인터뷰 내용

음악, 미술 모두 기간제 교사이고 음악은 전공자이다. 전공자 인원이 정해져 있어서 예술교과에 전공 교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공자가 아닌 경우 음악 수업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악기를 다룰 줄 모르면 음악 수업을 진행하

기 곤란하다. 전공자가 예술교육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음악수업에 주로 타악기를 사용하는데 음악실이 없어서 악기를 창고에 쌓아두었다가 수업 때 가지고 오는 어려움이 있다. 방음시설이 없어서 음악 수업이 다른 교실 수업에 방해가 된다. 국립특수교육원 지원으로 무용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국악교실을 운영하였는데 수업 참여도가 좋았다. 국악교실은 외부 강사가 진행하였다.

미술은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서라도 수업 준비를 하고 있다. 미술수업을 교실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다음 수업을 위해 1시간 안에 작품을 완성해야 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품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교실이 부족해서 특별실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예술교사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동기부여가 되고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학부모들이 저학년 때는 예술교육을 시키다가 고학년이 되면 직업교육을 선호한다.

고등학교 때 외부 레슨을 받고 전시회도 연 학생이 있지만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예술 사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재능교육 지원이 지속되지 못하고 있다. 예술대회에 나갈 기회는 거의 없고 학생들이 재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학예회가 전부인 상황이다. 정규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수업의 하나로 실시되는 동아리 활동으로 예술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방과후 교실에서 댄스, 난타, 공예 등을 배우고 있다.

중학교에는 스포츠 클럽이 있어서 체육은 활성화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가 있듯이 예술강사가 배치됐으면 한다.

찾아가는 공연으로 학교에 와서 공연을 해주면 학생들이 좋아하지만 공연이 어느 특정 달에 몰려있어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학생들이 영화 감상은 해보았지만 연극 공연을 본 적은 없다.

예술교육 준비물을 학부모에게 요구하지 않고 학교에서 준비하는데 학급별로 학습자료를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이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고가인 악기를 구입하기는 어렵다. 예술수업을 위한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다.

4) 방문 학교 4

- ① 방문지역/장애영역 : 충주/청각장애
- ① 방문일시 : 2013. 7. 12(금) 오후 2시 30분 ~ 4시
- ① 면담자 : 유○○(음악), 장○○(음악), 김○○(미술), 황○○(미술)
- ① 시설견학 : 미술실(목공실, 도예실), 음악실(난타연습실)
- ① 주요 인터뷰 내용 :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매우 좋아하며 수업을 마친 후 따로 연습을 하자고 할 정도로 음악교과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예술 교과를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술과목은 대회에 출전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음악 수업에 주로 리듬 악기를 사용하는데 좋은 의사소통 역할을 한다. 합주부, 밴드부, 마린바팀이 있고 합주부가 전국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공식적인 대회에 참가한 적은 없고 농아인 협회나 천주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밴드부, 수화공연, 댄스로 찬조 출연하고 있다.

청각장애학생이라서 말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대신 몸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TV를 보고 댄스를 똑같이 따라 하고 리듬감이 없어도 시각으로 춤을 추는데 춤을 추면서 마음에 담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기도 한다.

학생들이 노래방을 좋아하는데 노래방에 가서 부르는 애창곡이 애국가인데 그 이유는 가장 잘 아는 노래가 매주 월요일 조회 시간에 부르는 애국가이기 때문이다. 요즘은 인공와우수술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된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감상한다. 소풍을 가면 노래를 신나게 부르기도 한다. 기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우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서 무슨 소린지 알아보더니 한 학생이 차창 밖을 내다보며 농촌 풍경을 보고 노래를 부르는 소리였다(곡명은 과수원길). 청각장애학생들도 리듬은 금방 익히고 멜로디를 듣지 못해도 외워서 연주를 하며 아무리 어려운 곡도 연습을 하면 연주할 수 있다.

방학 때 집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악기를 대여해주었으면 하고 학생들에게 체험학습이 필요한데 공연을 보기 위해 서울까지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교사가 대학원에서 예술과목을 전공하기 어려운 것은 실기과

목을 전공자처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과목을 가르치는 특수교사를 위한 연수가 필요하며 교과전담교사는 음악 전공자가 바람직하고 예술교육 강사 파견이 요구된다. 외부 강사가 올 경우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어려움이 있다.

방과후 교실로 난타, 애니메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고 국악도 시도해보고 싶으나 정해진 강사료로 충주까지 내려와서 수업을 진행할 강사가 없는 상황이다.

본교의 경우 대학진학률이 50~70%이며 전공의 40%가 디자인 분야(순수 미술은 직업이 안되서 선호하지 않는다)로 미술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건국대학교 미대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 처음에 의상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다가 학생의 재능을 발견하고 교사가 대학진학을 위한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학원비 지원을 위해 학교 차원에서 후원자를 찾았다. 미술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교내 사생대회, 전국사생대회에 나가서 수상하고 대학 합격 후 후배들을 위해 모교에 와서 강의도 하여 좋은 모델링이 되고 있다.

피아노를 치고 싶다는 학생이 있었는데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씩 피아노를 연습했는데도 피아노 레슨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보다 실력이 더 뛰어났다. 음악을 좋아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 음악이론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배우기 어려워하고 노래 부르기, 리듬악기는 쉽게 익힌다. 따라서 실기를 하고 이론을 나중에 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① 특이사항

교장이 미술을 전공했고 교감이 20년 넘게 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았다. 교사들도 전반적으로 오랫동안 근무하며 학생에 대한 책임감이 높았다. 예술과목에 기간제 교사가 없었고 미술을 전공한 황○○ 교사가 학생들의 미술 재능을 발견하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면서 본인의 인적 인프라를 통해 재능기부를 연결하고 있었다. (유명한 도예가의 재능기부 등). 청각장애학교에도 음악수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교육 사례 조사

1) 연구 참여자 선정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예술 담당 교사 인터뷰를 통해 특수학교에서 예술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검토함과 동시에 좀 더 자세한 장애학생의 예술교육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선정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맞는 참여자를 선택한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인터뷰를 하는데 제약이 있어 이미 학교를 졸업한 후 활발히 예술 활동을 하며 미래의 꿈을 키우고 있는 클라리넷 연주자 은○○와 서양화가 박○○을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III-49〉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대상	분야	성별	연령	장애 유형	예술 활동
은○○	음악	남	29	자폐성 장애 2급	특수학교 졸업 백석예술대학 2학년 재학 현재 하트하트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수석
박○○	미술	여	30	지적장애 3급	일반학교(특수학급) 졸업 2005년 첫 개인전(서양화) 이후 국내, 미국, 독일, 일본 해외 전시회

2) 자료 수집 방법

두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는 비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2013년 7월19일과 22일에 실시되었는데 연구참여자가 지적장애인인 이유로 인터뷰는 연구참여자 어머니와 직접 면접에 기초한 심층 면담을 통해 각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



뷰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하고 녹취록을 만든 후 녹음된 음성자료와 비교하며 분석하였다.

3)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Giorgi(1997)의 현상학적 분석 과정을 통해 9개의 의미단위를 찾아 4개의 구성요소를 도출하였다.

가) 예술 시작

① 재능 발견

은○○는 초등학교는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담임교사가 은○○의 재능을 발견했다.

울겐이 거기(교실)에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음악 시간에 이렇게 치면 애가 막 가서 이거를 하는데(연주를 하는데) 너무 그걸 똑같이 했어요. 애가 듣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 피아노 한번 가르쳐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은○○)

박○○이 미술에 대한 재능을 발견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다.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미술 학원에 보냈어요.

미술 학원을 놀러 다니는 거야.(박○○)

○○이가 그냥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계속 책을 꺼내보는데 식물도감을 그렇게 꺼내 보더라고요.(박○○)

꽃 사진을 보고 있는데 한참 보다보니까 누가 옆에 있는 거 같아서 이렇게 봤더니 ○○이가 옆에서 눈이 완전히 상기된 얼굴로 서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리고 싶니?” 했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럼 니가 그리고 싶은 거 한번 뽑아.” 그랬더니 지가 이렇게 뽑더라고요. 몇 장을. “그럼 니가 그려봐.” 그러면서 줬대요.

너무 너무 그리고 싶었던 걸 그린 거니까 애가 열심히 그린거죠.(박○○)

① 예술능력

은○○는 음악에 대한 재능을 타고 났다. 악보 읽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악보를 읽고 15분도 앉아있지 못할 정도로 산만하지만 연주를 할 때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이고 연주 방법을 아주 쉽게 습득한다.

근데 악보를 어려운 것부터 보지는 않았는데 악보를 앤 봤대요.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얘, 너 미래에서 왔니?” 그러셨어요.

악보를 선생님보다 더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틀리면 틀렸지 애가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악보는 너무 잘 보는 거야. 그리고 진짜 있죠. 이런 걸 다 해. 클라리넷, 비올라, 피아노, 바이올린...다 해요.(은○○)

소나타 같은 걸 한번 해 보라고 베토벤 소나타 이런 거를. 좀 어려운 거에 손을 댔는데 너무 빨리 빨리 습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곡을 했어요.(은○○)

음악을 배우는 데는 스트레스가 없고 ‘쉽다. 안 힘들었다.’ 그래요. 새로운 곡을 줘도 초견이 너무 좋은 거예요.(은○○)

박○○은 그림을 그릴 때 완벽주의이다. 박○○은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작품으로 옮긴다. 표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다. 박○○ 그림은 색감이 뛰어나고 구성도 구사하며 피사체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피사체를 기억 속의 피사체와 접목시켜 자기만의 독특한 화풍을 만들어낸다.

스케치도 굉장히 오랫동안하고 굉장히 많이 지웠다 지웠다 하고. 그러니까 (일반교육이) 너무 안 맞는 거야. 그 시간에 뭘 하나 해가지고 탁 내는게 앤 너무 불편해.

지가 안 맞으면 계속 지우고 또 하고 지우고 또 하고 어떤 때는 선생님 너무 아까운데 와 보면 다 지운데. 나름 완벽주의야.(박○○)

처음엔 세밀하게 하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커지니까 이렇게 보면 비율이 안 맞잖아. 그러면 싹 지우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수도 없이 그걸 지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완전히 입시생처럼 스케치를 탁 해 놓더라고요. 그때가 18살...(박○○)

색감을 도저히 흉내 낼 수 없이 그리니까 그때부터 선생님이 눈여겨 보고.(박○○)

얘는 이상하다. 그림을 그리는데 보는 건 이걸 보는데 그림은 자기 기억 속에 있는 걸 그리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때서 애 히스토리를 애길 했어. ○○이는 사실 2돌부터 만 10년간 원주에서 완전히 자연 치료처럼 들로 산으로 계곡으로 그렇게 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다.

○○이는 장애의 특성이 전혀 없는. 약간 서정적인 그림을 그려요.(박○○)

전시회 할 때 초대해서 선생님이 오셨는데 선생님이 우시면서 나 ○○이 이렇게 할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당시 동그라미 끝에서 끝을 잊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데도 선생님이 얼굴을 그려주잖아요? 그러면 “그만해. 하지마, 하지마, 머리는 내가 할 거야. 머리는 내가 할 거야.” 그러더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예쁜 머리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게 있는 거야.

‘아, 애는 뭔가 자기가 예쁜 거를 해 보고 싶은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걸 그때 느꼈다.’고 해요.(박○○)

아, 애가 갖고 있는 지적장애라는 핸디캡이 오히려 그림 그리는 때에는 강점으로 작용했겠구나 싶어요.(박○○)

나) 예술 공부

① 학교 교육

은○○는 중학교부터 특수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 성악을 전공한 음악교사가 있어서 학교에 마림바합주단을 만들어 음악 활동이 상당히 활성화됐었다. 음악교사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연주 방법을 가르쳐주어 지적장애 학생들이 연주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학교수업으로 은○○의 연주 실력을 향상시키기는 역부족이었다.

합주단이 있어. ○○학교 합주단이 유명해요. 마림바..(은○○)

그분이 장애가 심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색깔 있죠? 무지개 색깔을 도는 빨강, 레는 주황, 뭐 이런 식으로 색깔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요. 근데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 이거는 특허내야 된다고 진짜.(은○○)

학교 수업에서는..(음악전문 공부는) 없었죠.(은○○)

박○○은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를 다녔는데 지시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글을 완전히 깨치지 못한 상태다.

일반학교에 다녀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있고.(박○○)

② 사교육

은○○는 피아노를 가르쳐보라는 담임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동네 학원을 찾아가 시작한 사교육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동네 피아노 학원 갔는데 애가 행동이 안 좋았어요. 없어지고 잊어버리고 그걸 다반사로 했기 때문에 15분 정도만 앉아 있으면 좀 해 보겠다. 그래가지고 15분씩 하루에 2번 다녔어요.(은○○)

전공한 선생님이 애를 알아보고 키워줘야 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죠. 너무 능력이 있는 아인데 엄마가 능력이 없어서 이제 키워주질 못한 거죠. 근데 오케스트라에 클라리넷을 하러 가서 아, 진짜 애가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은○○)

항상 애가 레슨도 돈이 없으니까 한 번 밖에 못 했어요. 일주일에. 그러니까 오케스트라는 곡이 전문적인 곡을 해요. 교양곡도 하고. 진짜 쉬운 곡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레슨을 두 번씩 다 해요. 애들은 일주일에 2시간을.

8년을 60만원에서 90만원 냈다 생각을 해 보세요. 8년을.(은○○)

박○○은 초등학교 때 지적장애 아동들과 그룹으로 인지교육을 위한 미술지도를 받았다. 이 그룹지도는 중학교까지 계속되다가 고등학교 때 학원을 찾았다. 좋은 선생님과 만남이 화가로 성장시켰다.

안 해 봤으니까 사실은 엄두가 안나가지고 안 받을 걸 그런 생각도 하셨어요. 왜냐면 자기는 입시생 전문이니까. 애 때문에 그 입시생을 소홀히 하면 컴플레인 들어올 테니까 망설인거죠.(박○○)

선생님이 자기가 가르친 거는 그 매체를 쓰는 방법만 가르쳤대요. 파스텔은 어떻게 사용하고 수채화는 어떻게. 붓은 어떻게 사용하고 수채화는 어떻게 어떤식으로 하고 그렇게. 그렇게 그림 그리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그림은 그 애한테 다 흘러나오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물꼬를 참 잘 터주신 거예요.(박○○)

“요거 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전혀 안 했어요.

“어 ○○이 이거 여기 이렇게 아직 안 된 거 같은데 이거 끝났어?” 이렇게 질문만 하고 “여기 너무 허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고 애가 하는 것을 하나도 터치를

안 하셨어요.(박○○)

그냥 애가 돌아다니면 돌아다니는 대로 내버려두고 거의 서너 달은 계속 관찰만 하
셨어요.(박○○)

아 애는 애한테 맞춤으로 그냥 해 줘야 되겠다. 예를 들어 파인애플을 그리는데 파
인애플이 다 썩을 때까지 못마치는 거예요. “○○아 너 이번 주까지 안 끝내면 저거
썩어서 못 그려.” 그 정도로 스케치가 굉장히 길어요.(박○○)

애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는데 난 그걸 충분히 인정해주고 가야된다고 생각을 하
거든요.(박○○)

굉장히 독특한 걸 발견하셨어. 보통 애네들(지적장애)이 구성하거나 그런 걸 하기가
참 어려운데, 애는 구성 능력이 있대요. 저한테 “어머니, ○○이는 구성이 돼요.” 이러
시면서 굉장히 ○○이한테는 독특한 게 있다고. 무엇보다 ○○이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세요.(박○○)

“○○아 이거 봐라. 너랑 나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푸르던
하늘이 이렇게 단지 시간만 지났는데 주황색이 됐다가 점점 빨갱게 되는 걸 한번 봐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하늘을 바라보는데 단지 시간만 흘러가는데 이렇게 색이 변해
가는 거를 한번 봐라. 그렇게 하면서 애가 그걸 기억하면서 스케치를 해가지고 집에
와서 색칠했는데 지금도 저희 거실에 그게 걸려져 있어요. ‘하늘’이라는 그림인데 너무
아름답고 정말 주황색과 막 이런 색깔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림을 그려 놔어요.(박○○)

다) 예술 활동

① 창작 활동

은○○는 피아노로 시작했지만 그후 다양한 악기를 다루다가 2007년도 하트하트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클라리넷 연주자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2005년도에 목사님한테 악기를 얻었어요. 그 분이 군악대에서 쓰던 악기를. 애한테는
클라를 줘보는데, 피아노 악보를 보고 이걸 붙였다. 애가.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잘 한
다고. “너 클라리넷을 해라. 해봐라.”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 손을 댔죠. (은○○)

박○○은 2005년도 <내 친구들展>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전시회를 열
고 있다.

첫 번째 전시회를 2005년도에 했는데 달라스에 ○○이 고모가 사는데 굉장히 미술을 좋아하는 분인데.

○○이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미국 전시회를 주선했어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우리 부부를 초대를 하자 그래서.(박○○)

① 예술활동에 있어서의 어려움

은○○는 연주 활동 기회가 없는 것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악기 관리도 어렵고 악기와 악보가 든 가방 서너 개를 들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몸이 많이 힘들다.

오케스트라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활동을 못해요 이건 복지재단의 폐단인데 앙상블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네 활동만 하라고 그래서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만 있지.(은○○)

왜 그러냐하면 클라리넷은 혹시 제가 죽거나 했을 때 누가 매니저를 해 줘야 그 악기가 관리가 돼요. 악기가 두 대란 말이에요. A, B. 그런데 관리하고 수리하고 그런데 일 년에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뭐 거기다 리드라는 게 있어요. 그냥 악기에 대고 부는 게 아니라 리드라는 것을 끼우는데 그게 하나에 몇 천원인데 그거를 누가 대줘야 되잖아요. 피아노는 여기 놓여있으면 칠 수 있지만 이거는 관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없을 때를 생각해서 피아노도 하라고 해요.(은○○)

10키로 이상 돼요. 악기에 악보. 지금 무릎이랑 관절이 성한 데가 없어요. 요새 방학 이니까 좀 가벼운 가방인데 가방만 세 개 네 개. 가방만 안 무거우면 날아다니겠어요.

버스타고 지하철 타고 이려고 다니니까.(은○○)

박○○은 작품에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림을 통해 뭔가를 이루겠다는 욕심이 없는 것이 어려움이다. 또 야외스케치를 나갔을 때 ○○이 장애를 잘 이해하고 설명해주며 영감을 줄 수 있는 전문 활동보조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없고 작품을 보관할 창고도 없어서 불편이 크다.

자기 화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애네들이 뭘 의지를 가지고 난 화가니까 하루에 6시간 열심히 해야 돼. 하면서 화실을 갖고 막. 그런 의지가 없잖아요. 지금도 놀러 놀러 다니듯이 다니는 건데.(박○○)



미술 선생님이 애하고 거의 대화하면서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애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지를 못하니까 데리고 나가서 야외 스케치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못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에게 도우미 학생 아르바이트를 시켜서 그런 거를 좀 해줘 볼까? 그런 생각도 사실 했었어요. 그 선생님처럼 같이 많이 대화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박○○)

작업실 아니, 없어요.

완성된 작품들은 저희가 다 포장을 해서 저희 지하에 광이 있어요.(박○○)

① 경제적 문제

은○○는 엄마와 둘이 산다. 아버지가 안계신지 15년이 됐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나오는 지원금과 엄마가 오전에 청소를 해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한다. 다행히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이 되지만 레슨비와 악기 유지비와 연주의상비, 교통비 등 연주 생활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

갑은 을에게 연주비를 지급한다는 등 계약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으로 간 거야. 완전히. 애네들을 직업이 되게끔 해 주겠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인 거예요.

활동하는 거며 홍보며. 다른 사람들은 다 프로그램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해. 근데 애들한테 지원을 나갈 때는 우리는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애가 어느 경우냐 하면 재할 협회에서 레슨비를 30만원 정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오디션을 했어요.

그런데 직업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은○○)

클라리넷을 진짜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악기를 계속 좋은 것으로 바꿔주어야 해요.

700만원 정도서부터. 뭐 독일 이런 데 가면 더 비싼 악기들 많은데 그래도 570만 원짜리가 그래도 전문가들 쓰는 첫 단계..(은○○)

박○○은 아직은 작가용 물감을 사용하지 않아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지만 지속적인 미술교육이 필요하다.

미술 학원만 꾸준히 그냥 보내주는 거니까.(박○○)
 작품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감 값이 많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물감을) 작
 가용으로 안 썼어요. 사실은 수채화도 좋은 거는 되게 비싸대요.(박○○)

라) 예술인으로서의 성장

① 예술인의 길

은○○는 처음 장애판정은 자폐성장애 3급이었다. 한글과 수를 다 알고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다. 한글 워딩을 1분에 700타를 하고 영타와 파닉스도 잘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점은행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때 평균 학점이 4.12였고 이
 수 학점을 6개월만에 마치고 대학에 편입할 수 있을 정도로 인지 능력이 뛰어나
 다. 그래서 장애인단도 처음에는 3급이었는데 병역 문제로 재검사를 받아 2급 판
 정을 받았다. 사회성이 많이 부족해서 옆에서 보살펴주지 않으면 안 되지만 연주
 를 할 때만큼 장애를 벗어놓은 듯이 완벽한 연주 실력을 보여준다.

애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또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뜻도 있고... 교수님이 ○
 ○야 나와서 발표를 해 봐라. 그러면 갑자기 발달장애 옷을 집어 던진 것처럼 다른 사
 람이 되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연주할 때도 그래요. 솔로로 연주하거나 오케스트라 연주하러 올라가죠. 무대에 올라
 가면 완전 다른 사람이라니까. 진지하고. 그런데 인사하고 내려오면 그때부터 발달장애
 그 옷을 입나봐.(은○○)

얼마전 피아노를 솔로로 했는데 내려와 가지고 자기가 조금 틀린 부분 있죠? 거기를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는 거예요.

못마땅해 가지고. 손이 미끄러졌다는 둥.(은○○)

박○○은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했지만 작품 이름을 붙이는 일은 스스로 하고
 있다. 처음엔 파스텔화를 그렸지만 지금은 유화를 그린다. 작품 크기도 50호로 커
 졌다. 그리고 전시회를 앞두고는 그림 작업에 속도를 낼 줄도 안다. 무엇보다 그녀
 의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치유 효과를 주고 있다.



우리 ○○이는 좋은 게 가르쳐주면 편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한 대요

애네들은 (단계를) 하나 넘어가는 걸 너무 힘들어하잖아. 유화는 그림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그런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유화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애가 완전히 유화를 다 익혀서 이제 유화만 해요.(박○○)

우리 ○○이는 우리 학원에 그림을 배우러 온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나는 애를 만나고 나서 ○○이의 눈으로 본 아름다운 세상을 엿볼 수 있는 축복을 얻었다고. ○○이를 학생으로 맞으면서 행복했다고 그렇게 서문에 써주셨어요.(박○○)

전시 한번 하면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전시회를) 몇 번 해봤으니까 사람들이 다 본다는 걸 아니까 그거를 인제 느끼는 거야. 그래서 작품이 확 좋은 작품도 나오고 그리고 속도감도 나.(박○○)

군이 50호 짜리를 그리겠다고 애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애가 고집을 피우더라. 이거를 하겠다고. “○○아 너 그거 그때까지 못 맞춘다.”고 “30호 정도를 하자.” 그래도 안 돼. 이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하게 해 줬는데 정말로 그걸 하루에 여섯 시간 작업을 해서 완성을 했어요. 내가 ‘우리 ○○이 화가 맞다.’ 그랬어요. (박○○)

내가 너무 감동이 돼서 못나가고 있노라고. 자기가 사실은 대령이라 그러던가? 군인 아저씨야. 방명록에다가 편지를 써 주고. ○○이 계속해서 정진하라고. 너무너무 좋다고. 이제 그렇게 글 써주고 가시고.

“참 그림이 이렇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네요.” 어떤 아저씨는 그렇게 쓰고, 어떤 불란서 사람이 불란서어로 방명록에 쓰고 가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썼어요.

애 그림은 어떤 맑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치유적인 에너지가 많대요.(박○○)

첨부터 소재를 뭘 그릴까를 정하는 것부터 마무리까지 다 ○○이가 직접 하게 해줘요. 요즘은 또 어디에 꽃혔냐 하면 호수, 물가에 나무들이 비친 그런 그림을 시리즈로 지금 그려요.(박○○)

① 소망

은○○는 전문 교육을 받기 위해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 전문 연주가로 발달장애 1호 음악인이 되는 꿈을 갖고 있다.

전문연주가로 나는 발달장애 1호 음악인을 만들고 싶다. 제가 지금 자꾸 그걸 여기 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은○○)

애는 평생 연주하고 살아야지 행복하니까.(은○○)

박○○은 실기 위주의 교육을 원한다. 그리고 정식 화가로 인정받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서 박○○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신지체인 최초의 여류화가 박○○’

조금하게라도 좋으니까 상설 전시관을 마련해서 여기가면 ○○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박○○)

어디 회장으로 있으시면서 오랫동안 작업 활동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미술협회 회원 가입)를 권하셨어요. 회원에 가입을 하면 자기들 할 적에 같이 스케치 여행도 가고 전시회도 하고...(박○○)

근데 애는 애한테 맞게 선생님이 애 커리큘럼으로 짜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이 그런 데가 있으면 보내고 싶어요. 근데 그런 데가 어딴어?

정말 ○○이한테 한번 해주고 싶은 거는 판화고, 조소고 하여튼 다양한 미술 장르를 한번 체험시켜 줬으면 좋겠어.(박○○)

예술은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기질이라고 하는 예술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듯이(방귀희, 2013) 두 명의 연구 참여자를 통해 지적장애 예술인은 예술적 재능을 타고 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재능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잠재된 재능을 찾아주는 것은 부모보다는 그 분야 전공 교사의 역할이 크다. 은○○도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오르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고 피아노를 가르쳐보라고 했고 박○○은 심심해하는 아이를 위해 보낸 미술 학원에서 그림의 재능을 키우게 되었다.

또 하나 예술능력은 이렇게 타고 나기도 하지만 지속적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 그런데 특수학교 교육으로는 그 능력이 개발될 수가 없다. 특수학교 예술교육 시간은 다른 과목에 비해 수업시간이 짧은데다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 경우 ○○학교에 음악교사가 성악을 전공한 교사라서 마립바합주단을 운영하는 등 음악 활동이 활발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특수학교 예술교과의 경우 전공자를 교사로 하는 것이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공자가 있는 특수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을 받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설학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지도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예술교육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두 명의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다. 우선 발표의 기회도 적고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아서 지적장애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전문 예술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술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 은○○는 무대 위에서 연주를 할 때는 장애를 벗어던지는 것 같다고 어머니가 말했고, 박○○은 50호 그림을 고집하며 하루에 6시간 이상 그림을 그릴 정도로 예술 활동에 대한 열정은 상상 이상이다. 이러한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예술인으로 키워주기 위해서는 특수학교에서 예술교육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 방안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실태조사를 위해 전국 특수학교 예술교사(음악, 미술)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4개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고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음악교과 담당교사가 있는 학교는 153개교 중 118개교로 77.1%로 나타났으며 미술교과 담당교사가 있는 학교는 153개교 중 98개교로 64.1%로 나타나 특수학교에는 음악교과 담당교사가 미술교과 담당교사보다 13% 많았다. 담당교사 인원수에 있어서도 음악교과가 181명, 미술교과가 154명으로 음악교과 담당교사가 더 많이 배치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와 현장 조사 및 사례 조사를 통해 분석한 구체적인 결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예술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확보

예술교과 담당 교사의 근무형태를 분석한 결과, 기간제 교사가 미술은 40.3%, 음악은 37.7%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현장 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간제 교사가 많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간제 교사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책임 있는 예술교육을 운영해나가기 어렵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예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사의 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

예술교육은 타 교과목에 비해 전공여부가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조사결과 예술교과를 전공하고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미술은 9.1%, 음악은 14.9%였으며 특수교사 자격증과 예술전공 자격증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사는 미술 35.1%, 음악 36.5%였다. 미술교과는 55.8%, 음악교과는 48.6%가 예술과 관련된 전공을 하지 않고 특수교사 자격증만 가지고 있는 교사가 장애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지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술교과가 음악교과에 비해 전공자가 더 적은 것은 음

악의 경우 악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전공하지 않은 교사가 음악 수업을 할 때의 한계점과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현장 조사에서 나타났다. 또한 현장에서의 교사들 인터뷰에서 전공자라도 미술교사가 음악교과를 지도하거나 음악전공 교사가 미술교과를 지도하는 등의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술교과 담당교사의 자격 관련된 설문에서는 음악담당교사 65.2%, 미술담당교사 61.0%가 각 예술분야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예술교과 담당교사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또한 예술을 전공한 전공교사가 지금보다 확대되어야 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기타 항목에서도 예술교과의 전공자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았는데, 학생의 소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며 개인의 특성에 맞는 인프라를 연계할 수 있는 전공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학교현장에서의 예술 전공교사에 대한 욕구는 미술을 전공한 교사가 미술 수업을 맡은 경우 미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음악을 전공한 교사가 음악 수업을 맡은 경우 음악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과 이러한 전공자를 통해 장애학생에게 보다 질 높은 예술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다. 김○○ 음악교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음악전공교사로 특수학교 음악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하는 등 지적장애학생 음악교육의 이론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황○○ 교사는 미술을 전공한 덕분에 미술계의 인적 자원을 학교와 연계하여 미술교육을 활성화시킨 결과 재능 있는 학생을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 일반전형으로 합격시키는 쾌거를 거두었다. 사례조사에서도 은○○의 경우 음악적 재능을 발견해준 것은 교사였다.

한편, 예술만 전공한 교사는 장애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지식과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장애학생 교육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예술 전공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의 특수교육 연수를 통해 특수학교 예술교사로 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음악, 미술 등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쉽지 않으며 특히 순수예술의 경우 전공분야로 취업하기는 더욱 어렵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국립특수교육원과 같은 특수교육 연수기관이 주관이 되어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인턴과정을 거쳐 특수학교에 예술 교사로 배치하는 등의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술을 전공하지 않고 예술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예술 교과에 대한 교사연수가 정기적으로 필요하다. 설문조사에서 문화예술관련 연수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음악은 20.4%, 미술은 31.2%만이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하였다. 매년 다양한 예술교과 관련 콘텐츠가 개발되고 다양화 되고 있는 가운데 예술교과 담당교사에게 정기적인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연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방법, 재능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연수 또한 포함되어져야 할 것이다.

나. 예술교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의 개선

설문조사 결과 예술교과를 운영하는 장소가 미술실인 학교는 44.8%, 음악실인 학교는 63.5%로 나타났는데 음악실이 미술실보다 많은 것은 음악 수업의 경우 악기연주나 합창 등으로 큰 소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실에서 교과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음악실의 경우 방음 문제도 있지만 건반악기, 타악기 등 부피가 큰 물건이 많아 매번 수업시간마다 음악도구를 들고 움직이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모든 학교에 공간을 확보하고 전용 음악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미술교과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실에서도 수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음악교과만큼이나 전용미술실이 필요하다. 장애학생의 경우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는 등의 정적이고 평면적인 작업보다는 감각을 자극하고 활발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재료에 대한 탐색과 흥미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자유롭게 신체활동을 하면서 감각적 활동과 재료를 활용해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 현장조사에서 만난 미술교사는 장애학생들에게 모래놀이를 경험해주고 싶어서 시도해보았는데 설치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정리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등 진행의 어려움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할 수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한편, 교재·교구에 있어서는 미술교과 도구로 그림도구만 비치된 곳이 35.5%로 가장 많아 미술수업이 평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음악교과 도구는 건반 악기가 22%, 리듬악기가 20.6%, 타악기가 20.5%로 나타났는데

현장 방문시 이러한 결과보다도 교수·학습자료의 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교수·학습자료와 관련된 교사들의 기타 의견에서도 교수·학습자료의 구입을 위한 예산의 증대와 다양한 교수·학습자료의 구입이 가능하도록 자율권을 주는 부분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예술교과 과정 안에서 진행되는 미술특성화 프로그램은 디자인이 15.2%로 가장 많았고 음악특성화 프로그램은 기악이 22.3%로 가장 많았다. 순수미술보다는 실용 미술인 디자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취업과도 연관이 있다는 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음악교과의 경우 가창에 재능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지원에 대한 욕구가 자유기고에서 상당수 나타났는데 교과 과정 안에서 특성화 프로그램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술교과 담당교사가 특성화 프로그램까지 맡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문화예술 강사 파견 및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재능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회 참가 경력 관련해서 미술은 32.7%가 장애인예술대회에 참가했다고 하였고 참가한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29.4%나 되었다. 음악은 장애인예술대회 경험이 19.4%, 참가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35.3%로 미술에 비해 적었는데 그 이유는 장애인음악경연대회가 수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비장애인예술대회 참가 경험은 미술은 6.5%, 음악은 7.1%로 매우 저조했는데 그 이유는 비장애인예술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미비하고 아직 비장애인예술대회에서 장애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환경 또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장애학생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인정받으며 대회 참여를 통해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는 대회가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특수학교에 예술교육이 침체되어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이러한 예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체육교과처럼 장애인올림픽이란 확실한 목표가 있고 전국장애인체육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그리고 각 종목별로 경기대회가 있으므로 인해서 대회 출전을 위해 준비를 하고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획득하며 경기력이 향상되어 전문 체육인으로도 양성이 가능한데 장애인예술은 그런 대회가 적다보니까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장애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장애인예술경연대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수학교에서도 대회 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준비시키고 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독려한다면 장애학생 예술분야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비전공 교사 : 문화예술 전문성 신장 지원 연수 체계화
전공 교사 :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의무화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 도입
문화예술 교육 인턴교사 도입



교과

미술/음악 과목 기준 수업 시수 확보 및 준수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흥미적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재능발견과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장애 영역별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문화예술 현장과의 연계수업 확대 및 모델 제시

〈그림 IV-1〉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점 및 지원 방안

다. 예술교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설문조사에서 예술교과 운영 시 개선 사항에 대한 질문에 미술은 38.5%, 음악은 39.8%가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자유기고에서도 장애종류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재능 개발 및 취업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취미 및 흥미 관련 프로그램의 분류화,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이외에 예술 관람을 통한 음악감상과 미술감상 등 문화예술 체험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설문조사와 현장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예술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 중 전공자가 적고 예술교과 관련 연수가 적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관련 매뉴얼과 워크시트를 제작하여 보급하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예술적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학교 간 예술교육에 있어서의 편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역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기관을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또한 필요하다.

한편 이번 현장조사에서 청각장애학교와 시각장애학교를 방문하였는데 장애학생의 예술교육에 있어 그동안 상당히 잘못된 선입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청각장애학교에도 음악수업이 필요하고 시각장애학교에도 미술수업이 똑같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장애특성상 청각장애인은 시각이 발달해서 미술을 잘하고 시각장애인은 청력이 발달해서 음악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특수학교 현장 조사를 통해 그런 생각도 편견이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충주○○학교의 음악실은 그 어느 학교보다 음악수업을 위해 많은 기자재를 갖추어 놓고 있었으며 학생들이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스피커를 곳곳에 설치하였는데 소리의 질감이 매우 좋았다. 타악기뿐만 아니라 건반악기, 목관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며 이러한 좋은 환경 안에서 학생들이 멜로디를 외워 연주를 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시각장애 특수학교인 인천○○학교에는 미술실에 시각장애학생들 작품이 곳곳에 눈에 띄었다. 미술을 전공한 김○○ 교사의 역할이 큰데 시각장애미술 과목 교재가 없어서 김교사는 스스로 교육방법을 연구해서 미술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의 작품을 교내에 전시하기도 하고 장애인미술대회는 물론이고 일반미술대회에도 작품을 하고 있다. 입상여부와 상관없이 학생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교사는 전국에 11개 시각장애학교 미술교사들 가운데 5개교의 담당교사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각장애인 미술교육을 위한 전문가 차원에서 연구에 대해 강조하였다. 인천해광학교는 2009인천세계도시축전에 에이블아트 프로젝트로도 참여했는데 <인천코끼리>라는 제목으로 시각장애학생들의 미술작업을 소개하고 작품을 전시해서 시각장애인의 미술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듯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과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교수방법의 개발, 이를 장애학생에게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 등이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며 이러한 교수·학습자료의 개발과 교수방법 개발과 관련된 프로

젝트 연구팀이 시범적으로 운영되어질 필요가 있다.

라. 예술교과에 대한 인식 변화

이번 조사에서 예술교과 운영과 관련하여 잘 운영되고 있다 또는 보통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교사가 미술은 83%, 음악은 87.8%로 높게 나타나 특수학교 현장의 예술교사들은 장애학생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면서 열심히 지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예술교과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서는 미술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이 28.8%,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미비가 26.8%로 나타났고, 음악의 경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미비가 31.3%,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이 25%, 교과운영에 필요한 인력부족이 25% 순이었다. 현장 조사에서는 오히려 인력 부족과 관련된 예술교사의 전문성과 인력 충원에 대해 피력하는 교사들이 많았다.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욕구는 자유기고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언급하였는데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며 희망하는 예술 프로그램이 있거나 재능 있는 학생을 발굴하였을 때 원스톱으로 인프라를 연결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각 특수학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각 지역의 특수학교 중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를 지정하여 문화예술교육 관련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어질 수 있다. 한편, 일반학교에 스포츠 강사가 파견되고 있고 특수학교에도 스포츠 전문 강사가 파견되고 있다. 문화예술강사 제도를 만들어 인프라를 모으고 교육하며 필요한 특수학교에 파견하여서 장애학생들의 질 높은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특수학교 대부분이 예술과목을 비전공자가 담당하고 있고 교과 과목 안에서 다양한 예술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현실은 문화예술 강사 파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장기적으로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수학교의 현재 예술교육으로는 재능 있는 예술인을 양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일반학교도 마찬가지로 비장애학생의 경우는 전문예술인 양성을 위해

특수목적의 예술전문 중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해서도 장애학생 예술교육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선, 특수학교 가운데 예술교육에 의지가 있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 학교를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로 지정을 해서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장애예술인 예술교육 사례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장애학생들의 예술교육을 상당 부분 사교육에 의지하고 있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적인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중점 학교에서 예술인 양성에 필요한 교사와 장비 등 모든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지원 방향

첫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교육권 확보와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 및 향유가 보편적으로 확대되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은 쉽지 않으며 경험의 기회 또한 많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장애학생은 입학 후 학교 교과목 안에서 문화예술을 처음 접하게 되며, 교과목 안에서 문화예술을 감상하고 느끼며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과목 안에서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은 학교 졸업 후 취미생활 및 여가생활의 일부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일부 장애학생들은 그러한 경험 안에서 본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장애예술인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시 말해, 교과목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회의 제시 및 예술적 재능 발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의 문화예술 과목(미술과 음악)의 시수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미술과 음악 중 선택하여 수업을 진행하거나 교과목 시간을 재량에 따라 줄일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IV-2〉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향

둘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교사 양성, 물리적 환경개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총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교육의 질적 가치를 높이는데 있어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학생의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역할 및 전문성과 관련해서 장애학생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특수교육 관련 지식이 우선 순위인가 아니면 예술 관련 전문적 지식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져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술 및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대다수의 교사들은 현재 특수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존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과 관련된 연수가 정기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교과와 상관 없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시대적 중요성을 알리고 이해도를 높이며 또한 장애학생에게 있어 미술과 음악 교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미술과 음악을 담당하고 있는 예술 비전공 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연수 기회를 확대함에 있어 온라인, 오프라인을 폭넓게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워크샵도 요구된다.

현재 특수교육현장에서는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연구회 등에서 교사들을 위한 교육, 연수를 기획, 실행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관련 연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교사를 위한 정기적인 연수기회를 늘리고 지역 내 평생교육원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적은 비용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전에 있는 특수학교 미술교사연구회와 같이 자발적인 문화예술 관련 연구회 및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교육 콘텐츠를 연구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다면 적은 비용으로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예술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을 인턴교사로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특수학교에서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는 대다수의 강사들이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 없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턴교사를 대상으로 사전 연수를 의무화해야 한다. 장애학생 및 특수교육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예술교육 방법론을 습득할 경우 교육적 효과는 높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리적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모든 특수학교에 전용 미술실과 음악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 설치되기 시작한 오감체험실을 특별실의 하나로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다양한 감각을 느끼고 표현하며 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것이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을 때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콘텐츠 개발에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콘텐츠를 개발, 연구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까지 언어, 수리 영역에 치중되어 왔던 연구 사업을 음악, 미술 영역에도 확대하여 학교현장의 욕구에 적합한 새로운 교수·학습 자료 및 교수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문화예술 영역별, 단계별 프로그램 교안을 개발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수시로 교사대상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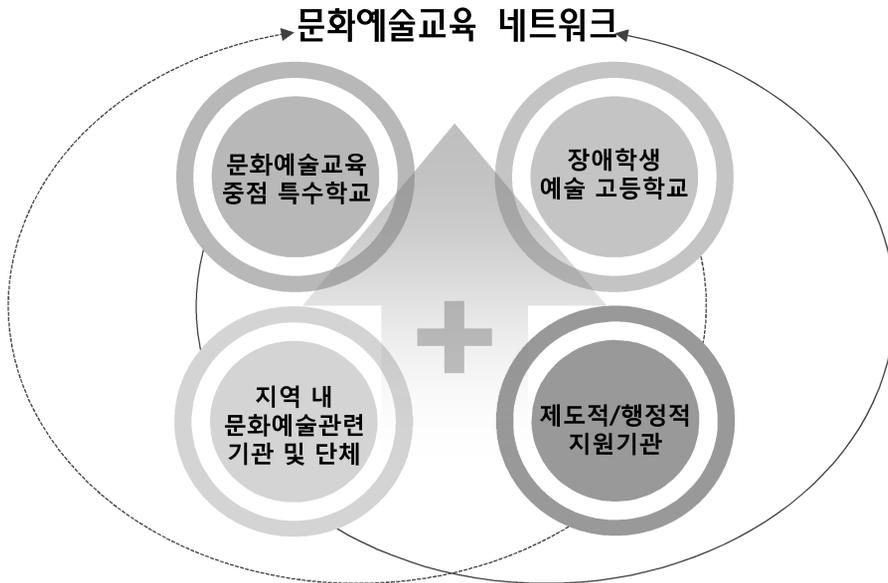
셋째,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현재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은 거점학교가 설치되어 교사와 학부모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

다.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해서도 지역별로 문화예술중점 학교를 선정하여 문화예술교육 코디네이터(가칭)를 상근으로 채용하고 문화예술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특수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교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안내하며 지역 자원 연결, 연수 안내, 문화예술교육 연구회 운영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각 특수학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예술교육 강사 지원과 더불어 예술과목 특수교사가 운영상에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모니터링 역할도 가능하다. 충주○○학교의 경우, 교과목 안에서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장애학생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키워주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찾아 연결하고 도자기 공예실, 난타실 등 시설을 갖추고 전문적인 문화예술교육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학교를 행정적으로 지원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중점학교로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이러한 문화예술중점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 하나, 문화예술교육은 교실에서뿐만 아니라 현장경험도 매우 중요하다.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특수학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시설 및 단체, 전문인력과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 교사의 열정 또는 개별 지원사업 만으로는 문화예술교육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에 지역 내 문화예술관련 기관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대도시가 아닌 경우,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및 연수,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한 문화예술체험 행사 및 캠프 등을 희망할 경우 언제든지 관련 기관과 연결하여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체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 중점학교가 중심이 되어 지역내 관련 기관과 전문가를 발굴함과 동시에 장애학생에게 있어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0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특수교사 미술연수라는 프로그램을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이렇듯 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예술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교과목 안에서의 문화예술교육만으로는 재능 있는 장애학생을 발굴하고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비장애학생의 경우에도 예술에 재능이 있는 학생

들을 위한 예술중고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문화예술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을 위한 장애인예술고등학교 설립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스웨덴의 리니아 예술학교는 지적장애인을 위한 전문 예술교육기관으로 예술강사는 모두 전문 예술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학생들은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또한 졸업생 중 전문예술가로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스톡홀름예술재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고 전문코치의 지도 또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듯 재능 있는 장애학생이 사교육에 의존하거나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접하고 사회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학생 예술고등학교가 설립된다면 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중점 학교와 연계하여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시켜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그림 IV-3〉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구축

참고문헌

- 강영심, 김경 (2011). 특수학교 예술강사지원사업 실태와 교사의 인식. 발달장애연구, 15(3), 113-134.
- 김종인, 김원경, 고정욱, 오이표 (2009). "장애아동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방안연구 I: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현황분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 교육과학기술부 (2011). 학교체육, 예술교육 내실화 방안.
- 국립특수교육원 (2011). 2011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이해와 적용.
- 국립특수교육원 (2012). 개정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학습세미나.
- 국립특수교육원 (2013). 특수교육 공통교육과정 및 선택교육과정 개선방안연구.
- 문화관광부 (2005).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예술분야 통계 생산 및 관리 방안 연구.
- 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교육지원법.
- 방귀희, 김언지 (2012). 한일 장애인예술 발전과정에 관한 고찰, 장애인복지연구, 3(2), 49-77.
- 방귀희 (2013).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경험에 관한 연구, 송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령 (2005). 장애인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오혜경 (2005). 장애인의 문화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1, 87-120.
- 윤여각 (2003). "문화, 예술교육에 대한 재검토" 교육원리 연구, 8(1), 143-163.
- 이필상 (2010). 장애학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한국청각/언어장애 교육연구, 12(1), 125-147.
- 장애인문화진흥회 (2012). 한국장애인예술정책연구.
- 최현정 (2010). 스웨덴의 장애인 정책과 문화복지.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06). 장애 비장애 문화예술교육.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회 (2006). 장애 비장애 통합문화예술교육연구 보고서.
- 한국장애인문화협회 (2010). 스웨덴 장애인 문화예술과 국제교류 세미나 자료집.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2011). 2011 전국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활동 프로그램 실태 및 욕구조사.
- 木代 喜司 (1993). 障害児の指導実践から美術教育の原点を考える : 京都府の養護学校における重度重複障害児の美術指導から美術教育の根源的基礎を考察する . Art Education (14), 65-75
- 西尾真治 (2002). エイブルアートの政策的意義
- 西尾真治 (2010). 文化のユニバーサルデザイン政策—エイブルアートムーブメントによる地域文化の創造
- 文部科学省 · homepage (特別支援学校学習指導要領等)
- 文部科学省 (2003) 今後の特別支援教育(最終報告)
- 筑波大学附属視覚障害特別支援学校 · homepage ·
- 山名敏之,菅道子,山崎由可里 (2005) 障害児のための芸術教育基礎論の到達と課題

○○○ 부록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욕구 및 실태조사
(음악교과/미술교과)
설문지





4. 음악교과 관련 전공과목 (3번에서 ②, ③에 체크 한 해당 전공자만 기입)	① 피아노 ② 성악 ③ 작곡 ④ 관현악 ⑤ 타악 ⑥ 국악 ⑦ 기타 _____
5. 특수교사 자격취득 과정	① 특수교육과 졸업 ② 특수교육관련학과 졸업 ③ 사범계열학과 졸업(복수전공) ④ 교육대학원 졸업 ⑤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⑥ 특수교육 자격검정
6. 특수교육 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7. 근무형태	① 정규직 ② 기간제 (비정규직)
8.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정 (복수응답)	① 유치원 과정 ② 초등학교 과정 ③ 중학교 과정 ④ 고등학교 과정 ⑤ 전공과 과정

II.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9. 학교명	_____ 학교		
10. 학교 설립 형태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11. 소재시도	① 서울특별시 ④ 인천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⑩ 강원도 ⑬ 전라북도 ⑯ 경상남도	② 부산광역시 ⑤ 광주직할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⑪ 충청북도 ⑭ 전라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③ 대구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⑨ 경기도 ⑫ 충청남도 ⑮ 경상북도
12. 특수학교 장애유형	① 시각장애 ④ 정신지체	② 청각장애 ⑤ 정서장애	③ 지체장애

III.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음악 교과 시수	주당 _____ 시간 연간 _____ 시간
14. 음악교과 담당 교사 수	총 _____ 명
15. 시간당 교과 운영 시간	초등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중학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고등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전공과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16. 교과 운영 장소	① 학급교실 ② 특별실(음악실) ③ 기타 _____
17. 현재 음악교과를 가르치는 총 학생 수	총 _____ 명
18. 실시하고 있는 음악 특성화 프로그램	(예시: 악기, 뮤지컬, 무용, 연극, 음악감상 등)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음악교과 과정에서 진행되는 특성화 프로그램)
19.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 (주된 장애 두 가지만 선택)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장애 ⑤ 정서 및 행동장애 ⑥ 의사소통장애 ⑦ 학습장애 ⑧ 자폐성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20. 음악 교과 악기 보유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건반악기 ② 타악기 ③ 현악기 ④ 목관악기 ⑤ 금관악기 ⑥ 국악기 ⑦ 리듬악기 ⑧ 기타 _____
21.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장애인 예술대회 ② 비장애인 예술대회 ③ 교내, 외 발표회 ④ 참가한적 없음 ⑤ 기타 _____
22. 학생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연간 횟수	① 1회이하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23. 지도학생 주요 수상경력 (예; 00대회 00상)	

IV(24).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화예술교육(음악)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음악) 운영 시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욕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음악) 운영 시 필요한 학교시설 관리, 기자재 확보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음악) 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음악 교과 담당)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음악) 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음악)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담당교사로서의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현재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음악)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을 택한 경우 26번 문항으로)

- ①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 ② 보통이다.
- ③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26번 문항으로)
-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 ⑤ 기타 _____

26. 문화예술교육(음악) 교과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
- ②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 ③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 ④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
- ⑤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부족
- ⑥ 기타 _____

27. 문화예술교육(음악) 담당 교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음악)분야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② 문화예술(음악)분야 전공자
- ③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④ 실기 및 직업재활 전공자
- ⑤ 일반학교 교사(음악)자격증 소지자로 일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
- ⑥ 기타 _____

28. 작년 1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연수 이외에 원활한 교과(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연수 또는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 의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번 선택시 29번 문항으로)

- ① 예 (29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29. 연수를 받았다면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 ① 직무연수 (시간)
- ② 자율연수 (시간)



30. 문화예술교육(음악)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훈련과 연계 가능한 문화예술교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기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기본 교육과정과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이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교과 운영에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⑤ 기타 _____

31. 문화예술교육(음악) 교과 운영에 먼저 보완되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담당교사의 양성 및 교육과
- ③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의 확립
- ④ 문화예술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

3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음악 활동은 어떤 활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진로활동 ⑤ 실시하지 않는다.

33.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음악 활동의 종류를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4. 담당하고 있는 학생 중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러한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욕구 및 실태조사

- 미술 교과 담당교사용 -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는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장애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은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재활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일체의 활동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예술(미술/음악) 교과를 중심으로 편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귀하의 답변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방향성 제시를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모든 질문에 성실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설문은 국립특수교육원 전자설문 시스템을 통해서 실시되고 작성된 설문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연구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설문 조사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5. 13.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팀
담당 오영석 교육연구사
ysoh310@moe.go.kr

I.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이상
3.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① 특수교사 자격증 ② 일반교사 자격증 (미술관련전공) ③ 특수교사 + 일반교사 자격증



4. 미술교과 관련 전공과목 (3번에서 ②, ③에 체크한 해당 전공자만 기입)	① 서양화 ② 동양화 ③ 조소 ④ 디자인 ⑤ 미술교육 ⑥ 공예 ⑦ 기타 _____
5. 특수교사 자격취득 과정	① 특수교육과 졸업 ② 특수교육관련학과 졸업 ③ 사범계열학과 졸업(복수전공) ④ 교육대학원 졸업 ⑤ 특수교육대학원 졸업 ⑥ 특수교육 자격검정
6. 특수교육 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7. 근무형태	① 정규직 ② 기간제 (비정규직)
8.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과정 (복수응답)	① 유치원 과정 ② 초등학교 과정 ③ 중학교 과정 ④ 고등학교 과정 ⑤ 전공과 과정

II. 다음은 귀하가 근무하는 학교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9. 학교명	_____ 특수학교		
10. 학교 설립 형태	① 국립	② 공립	③ 사립
11. 소재시도	① 서울특별시 ④ 인천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⑩ 강원도 ⑬ 전라북도 ⑯ 경상남도	② 부산광역시 ⑤ 광주직할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⑪ 충청북도 ⑭ 전라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③ 대구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⑨ 경기도 ⑫ 충청남도 ⑮ 경상북도
12. 특수학교 장애유형	① 시각장애 ④ 정신지체	② 청각장애 ⑤ 정서장애	③ 지체장애

III.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미술 교과 시수	주당 _____ 시간 연간 _____ 시간
14. 미술 교과 담당 교사 수	총 _____ 명
15. 시간당 교과 운영 시간	초등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중학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고등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전공과 ① 40분 ② 45분 ③ 50분
16. 교과 운영 장소	① 학급교실 ② 특별실(미술실) ③ 기타 _____
17. 현재 미술교과를 가르치는 총 학생 수	총 _____ 명
18. 미술 특성화 프로그램	_____ _____ (예시: 미디어, 사진, 영화, 디자인, 문학 등)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과 후 활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정규 미술교과 과정에서 진행되는 특성화 프로그램)
19. 지도 학생의 장애 유형 (주된 장애 두 가지만 선택)	① 시각장애 ② 청각장애 ③ 정신지체 ④ 지체장애 ⑤ 정서 및 행동장애 ⑥ 의사소통장애 ⑦ 학습장애 ⑧ 자폐성장애 ⑨ 건강장애 ⑩ 발달지체
20. 미술 교과 도구 보유현황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그림도구 ② 공예도구 ③ 도자기도구 ④ 목공예도구 ⑤ 조소도구 ⑥ 기타 _____
21. 지도 학생 대회 참가 경력 (*해당사항 모두 체크)	① 장애인 예술대회 ② 비장애인 예술대회 ③ 교내, 외 발표회 ④ 참가한적 없음 ⑤ 기타 _____
22. 학생 인솔하여 대회에 참가하는 연간 횟수	① 1회 이하 ② 2회 ③ 3회 ④ 4회 이상
23. 지도학생 주요 수상경력 (예: 00대회 00상)	

IV(24).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문화예술교육(미술)의 목적 및 취지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미술) 운영 시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욕구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미술) 운영 시 필요한 학교시설 관리, 기자재 확보가 잘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미술) 담당 교사의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미술 교과 담당)이 충분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미술) 교과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화예술교육(미술)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와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문화예술교육 담당교사로서의 귀하의 생각에 대한 질문입니다.

25. 현재 교육과정 편성 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미술) 교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을 택한 경우 26번 문항으로)

- ① 잘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 ② 보통이다.
- ③ 잘 운영되고 있지 않다. (26번 문항으로)
- ④ 생각해 보지 않았다.
- ⑤ 기타 _____

26. 문화예술교육(미술) 교과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미비
- ② 담당교사의 전문성 부족
- ③ 교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부족
- ④ 문화예술교육 교과에 대한 인식 부족(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및 중요성 등)
- ⑤ 학교와 학부모의 관심 부족
- ⑥ 기타 _____

27. 문화예술교육(미술) 담당 교사의 자격요건으로는 어느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문화예술분야(미술)를 전공한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 ② 문화예술분야(미술) 전공자
- ③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
- ④ 실기 및 직업재활 전공자
- ⑤ 일반학교 교사 (미술)자격증 소지자로 일정의 특수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
- ⑥ 기타 _____

28. 작년 1년 동안 정부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특수교육연수 이외에 원활한 교과(문화예술교육) 운영을 위해 개인적으로 연수 또는 기타 문화예술교육 관련 강의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①번 선택시 29번 문항으로)

- ① 예 (29번 문항으로)
- ② 아니오

29. 연수를 받았다면 직무연수와 자율연수중 어느 것에 해당됩니까?

- ① 직무연수 (시간)
- ② 자율연수 (시간)



30. 문화예술교육(미술)이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직업훈련과 연계 가능한 문화예술교과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② 기본 교과과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 ③ 기본 교육과정과 여가생활 및 취미생활이 연계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④ 교과 운영에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므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⑤ 기타 _____

31. 문화예술교육(미술) 교과 운영에 먼저 보완되어야 할 사항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 ② 담당교사의 양성 및 교육과
- ③ 행정적·재정적 지원체제의 확립
- ④ 문화예술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

32.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미술 활동은 어떤 활동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 ① 자율활동 ② 동아리활동 ③ 봉사활동 ④ 진로활동 ⑤ 실시하지 않는다.

33.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실시하는 미술 활동의 종류를 모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34. 담당하고 있는 학생 중 미술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다면 어떤 재능이 있고 이러한 재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 학생

문화예술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13년 10월 28일 인쇄

2013년 10월 30일 발행

발행인_ 김 은 주

발행처_ 국립특수교육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http://www.knise.kr>

Tel. 041-537-1500

Fax. 041-537-1530

인쇄처_ (주)필코 in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7길 14

Tel. 02-2269-2466

Fax. 02-2267-4268

발간등록번호 11-1342075-000007-01

ISBN 978-89-6095-431-1